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MONTHLY MAGAZINE
VOL. 412. **2012. 10**

10 Pioneers up above
창석(滄石) 최용덕 장군

18 기획특집
가을, 책, 그리고 공군…

46 Air-Supply
군인, 슈퍼스타가 될 것인가?

52 Health Diary
술로 소독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책 읽는 공군

발 간 등 록 번 호
38-1600006-000001-06

GLOBAL & INSIGHT

06

06 **경청노트** ① G2시대의 동북아 정세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08 **경청노트** ② 엔딩 크레딧 속 '공군' 그 이상의 의미

10 Pioneers up above 창석(滄石) 최용덕 장군

12 World-Wide Vision 공군 전술항공통제사(TACP)의 생활

14 Global AF 불운의 주인공 토네이도 전투기

16 Leadership+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을 도와주자

공군IN

18

18 **기획특집** 가을, 책, 그리고 공군…

26 **포토프레임@AF** 참모총장 스케치

28 AIR FORCE MONTHLY 2012. 10. NEWS

30 **생각하는 그림** 고마워, 우리를 기억해 줘서

33 **공군 홍보대사 Zoom In** 구자철 선수 근황

34 Photo Sketch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이글 에어쇼

COVER STORY

표지(앞) 가을과 책읽는 공군 **일러스트** | 이한아

표지(뒤) MBC '승부의 신' 녹화를 위해 10전비를 방문한 카라와 시크릿

CULTURE 36.5

40

40 **Hollywood English**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42 **인생은 아름다워**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44 **Art in Everyday** 가을에 쓰는 편지

46 **Air-Supply** 군인, 슈퍼스타가 될 것인가?

48 **Preview** 10월의 문화행사

OPINION

50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8월호를 읽고서

50 **공군지 캠페인** 천연조미료로 건강을 지킨다!

52 **Health Diary** 술로 소독할 수 있다고?

54 **독자기고** 삼성전자 사원들이 내게 한 부탁

56 **책마을**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MONTHLY MAGAZINE

VOL. 412. 2012. 10

※ 공군지를 인터넷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airforce.mil.kr)

발행일자 2012년 10월 2일(통권 제412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43, 042-552-6943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김승표

기획 · 편집 소령 조세영, 대위 김나청 **디자인 · 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8월호를 읽고서

01 월간 「공군」은 [금메달]이다. 무더위와 일상에 지친 국민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블랙이글의 기사를 아주 흐뭇하게 봤습니다. 국산 초음속기 T-50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뤘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행사에 참가해 우리 공군의 실력과 T-50의 우수한 성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파이팅! **– 서울 구로구 이춘성**

02 월간 「공군」은 [시금치]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얻듯이 월간 「공군」을 보면 힘든 군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블랙이글에 관한 기사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공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게 되어 공군인임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월 유익한 내용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과 관련한 기획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 영월군 최정훈

03 월간 「공군」은 [화채]다. 저 같은 육군 병사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공군을 맛깔나게 담아낸 화채 같은 월간 「공군」. 이번 호에서는 화보형식으로 다뤄주신 블랙이글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공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항공기를 통제하는 관제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함 뒤에 묵묵히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는 관제부서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 충남 계룡시 설우윤**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04 월간 「공군」은 [심장]이다. 공군이 없으면 국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공군은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탐색구조 훈련 현장 기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조종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구조사들이 위대해 보였습니다. 공군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많은 공군 부대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호에도 더욱 좋은 기사를 기대합니다. **– 전남 순천시, 전정호**

05 월간 「공군」은 [슈스케]다. 영국 본토 항공 무대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우수성을 잘 알렸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낭보를 들려준 블랙이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흑표전차 수출에 이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두 번째 기대 기종인 T-50이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종사들의 훈련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 서울 관악구 유재범**

06 월간 「공군」은 [독수리]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새 독수리처럼 공군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블랙이글 커튼콜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임무요원들의 생생한 이야기 덕분에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블랙이글 조종사들의 훈련 과정에 대한 기획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같은 항공 레저스포츠에 대한 소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광주 광산구 남건우**

G2시대의 동북아 정세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엔딩 크레딧 속 '공군' 그 이상의 의미
* 경청노트

창석(滄石) 최용덕 장군
* Pioneers up above

공중과 지상을 넘나드는 공군
전술항공통제사(TACP)의 생활
* World-Wide Vision

불운의 주인공 토네이도 전투기
* Global AF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을 도와주자
* Leadership+

Global & Insight

 글. 백승주 | KIDA 책임연구위원,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

G2시대의 동북아 정세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금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이끄는 G2시대다. 글로벌 차원은 물론 동북아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안보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2012년 8월 제임스 도빈스(James Dobbins)는 국제전략연구소가 발간하는 "Survival"이라는 저널에서 "중국이 30년 뒤에 미국과 전쟁을 각오할지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G2가 군사적 충돌이라는 비극적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섬뜩한 비극적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1월 5일 신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신국방전략에 드러난 미국의 '의도'보다 '내용'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안보전문가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미국이 발표한 신국방전략의 의도는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 재정을 비롯한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국방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함축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속 : 21세기 국방 우선순위,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 Priority For 21st Century Defense〉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동 문건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고 있지 않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계심은 새로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안보정세, 군사정세를 반영, 함축하고 있다. 외교문서 성격인 전략문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군사력 증강 의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주변국의 안보적 우려를 적시했다. 가장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비증강을 경계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동맹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한 · 미 · 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우리가 한 · 미 · 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경우 필연적으로 중국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경계할 것이고, 북한 및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의 의도대로 안보협력 구도가 진행될 경우 동북아에 새로운 진영대결적 군사구도 형성 추세가 진행될 것이다. 동북아의 진영대결적 군사구조는 "북핵문제 해결, 북한민주화, 남북한 협력관계 강화"라는 안보현안 해결에 장애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미국의 전략문서는 기본적으로 G2시대에 미국의 아태전략이 담겨져 있다. G2시대에도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 ·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미국의 정책방향 및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전략과 정책들을 수정하고 있다. 한 · 미 · 일 안보협력 및 중 · 러 군사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의 안보정세에 직접적 영향을 받아왔다.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받는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은 21세기에 극명하게 나타났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냉전구조 속에서 국토가 분단되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G2시대가 공고하게 되기 전에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만드는 등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시도를 했다. 냉전체제 해체에서 G2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우리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

G2가 공고해지면서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 간 대결구조가 반영된 진영대결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유럽에서 핵군축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북한 핵개발을 계기로 핵개발 동기가 자극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구도 속에 군비증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국방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진영대결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외군사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안보골격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 · 미 · 일 안보협력 강화에 일정부분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분단극복이라는 국가전략을 위해 중국과 대결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안보역량을 결집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격차를 좁히는 군사력 건설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라는 현존위협 대비에 함몰하여 주변국과 군사적 격차를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핵심이익은 동맹전력이나, 안보협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적 억지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 국가의 발전전략을 고려할 때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사적 차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전략적,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한 억지(deterrence)는 "적의 치명적인 핵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공격을 당하는 측이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핵보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위협을 할 수 있도록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보복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보유 의미를 사실상 없애는 전략목표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확장억지위원회'를 통하여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을 찾는 과정에서 '중급국가의 안보구상(Middle Power's Initiative)'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중급국가의 안보구상'이란 일생 동안 핵무기 폐기운동을 한 클랜스턴(1914~2000) 미국 상원의원이 핵보유를 포기한 국가들이 핵보유 국가들로부터 받는 안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제반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서 중급국가란 '핵을 보유하지 않아서 군사적 강대국은 아니지만 경제규모 등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를 말한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러한 중급국가군에 해당한다.

동북아 다자안보를 통해 진영대결구도를 약화시키고, 확장억지를 통해 북핵에 대처하면서도 독자적 방어능력을 확대하면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센카쿠(조어대)열도에 대한 중국, 일본 간 외교적 갈등이 드높다. 미국 파네타 국방장관이 전쟁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파고가 높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 역시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동북아 진영대결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본다. 우리 외교가 거친 도전과 새로운 선택, 역할을 설정할 기로에 있다. 외교를 잘 할 수 있는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있다. **AF**

 글. 소령 강경희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엔딩 크레딧 속 **'공군'** 그 이상의 의미

'RTB(Return To Base)', 평소 조종사들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할 때 사용하지만, 전시에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각별한 의미도 담겨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 단어가 최근에 인터넷 검색창과 언론에 오르내렸다. 〈R2B : 리턴 투 베이스〉(이하 〈R2B〉) 개봉 때문이다. 영화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제대로 된 항공영화를 갖다

"시속 1,000km를 넘는 빠른 속도와 지상에서는 할 수 없는 3차원의 현란한 기동 그리고 강력한 무장, (중략) 전투기는 다른 항공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자랑한다. (중략) 전투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촬영이라는 특수하면서 고난이도의 촬영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영화 가운데에서도 전투기 영화는 사실 매우 드문 편에 속한다." – 군사전문가 김대영

항공영화 제작이 어렵다는 것은 영화사(映畵史)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출격명령(1954년, 홍성기)", "빨간 마후라(1964년, 신상옥)", "성난 독수리(1965년, 김기)", "창공에 산다(1968년, 이만희)", 이 4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군이 일부 장면을 지원한 관련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지만, 항공액션 영화의 갈증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도 비슷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외에는 쉽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R2B〉의 제작을 위해 시도했던 방법 하나하나가 도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전투기 조종사가 든 카메라에만 의존하던 방법에서, 공중 특수촬영기인 '울프에어(Wolfe Air)'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 없던 영화를 만들어 냈다. 참고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F-15K와 촬영기는 서로 다른 비행 조건을 극복하고 동시 비행을 했다. 양측 조종사들의 경험과 지식, 치밀한 안전 브리핑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입체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빨간 마후라' 당시 F-86기를 찍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다는 점을 참고해 계획되었던 저고도 임무촬영도 기록할 만한 작업이었다. 카메라와 지미집(Jimmy Jib)을 메고 1,383m의 소백산까지 올랐던 스태프들의 노력으로 관객들을 향해 돌진할 것 같은 기동이 그려졌다. 아울러 컴퓨터 기술력과 제작진의 상상력, 조종사의 열정적 조언은 공중기동을 보지 못한 영화인들이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낼 것이냐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조종사들조차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그려볼 수밖에 없었다. 적기 조우, 도심의 추격신 같은 장면들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R2B〉의 도전이 없었다면, 여전히 "빨간 마후라"가 우주시대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영화로 소개될 것이다. 〈R2B〉는 반세기 동안 끊어진 항공영화의 불씨를 '강한 공군'의 모습으로 되살렸고, 관객들은 조종사들만이 바라보았던 창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군과 영화, 윈윈의 가능성을 보다

"연예 산업과 군 산업이라, 어째 잘 안 어울리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존재한다. (중략) 한쪽은 비용 절감, 그리고 다른 한쪽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셈이다. – 일요신문 김미영 기자

미 국방부에는 '시청각 특별위원회'와 각 군 공보실 산하 '영화부'가 있어 유료 또는 무료로 영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까지 한다.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영화사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 국방부는 군과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영화사는 군의 지원을 통해 엄청난 제작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리얼리티를 얻는다. 비용 절감은 다양한 영화 제작이 시도되도록 하였으며, 작품 수준도 향상시켰다.

영화 지원 사례가 많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R2B〉는 군 지원 자체만으로 화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실제 촬영시간보다도 몇 배나 더 길었던 안전 브리핑, 군의 규정 속에서 촬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 과정은 군과 영화계의 상호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찾아야하겠다. 영화와 군이라는 두 전문집단의 협력과정은 앞으로 군의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영화사들에게도, 민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 군에게도 소중한 노하우가 될 것이다.

공군, 대중문화의 파트너가 되다

"공공 PR은 조직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과 양질의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J. Grunig(1992)

공공 PR(Public Relations)은 국민과의 벽을 줄이고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군 역시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2B〉는 이러한 활동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영화는 공공기관이 갖는 벽을 허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관객을 집중시키고 동화시킨다. 아울러 배우들의 대중적 이미지를 통해 친근함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공군은 영화가 갖는 문화적 효과와 친밀감에 주목하였다.

한편 공군은 〈R2B〉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줄이며 '홍보 영화'일 것이라는 걱정도, 반대로 지나친 '상업 영화'일 것이라는 걱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군과 영화계의 동반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군의 상업 영화지원에 대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엔딩 크레딧 속 '공군'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르다. 반세기 만에 만들어지는 영화에 대한 기대와 평가도 그만큼 다를 것이다. 〈R2B〉에 대한 다양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R2B〉가 청소년들에게 '하늘'을 향한 꿈을 심어주었고, 군을 낯설어하는 이들에게 '안보'를 설명한 것은 분명하다.

2009년 8월 제작 지원 검토부터 2012년 8월 14일 개봉까지, 3년의 대장정을 오며 각종 화제를 만들었던 영화 〈R2B〉. 엔딩 크레딧 속 '공군'에는 새로움을 향한 도전, 함께한 이들의 땀방울, 그리고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 있다. 영화 〈R2B〉를 영화 그 이상의 의미로 보는 이유이다. **AF**

 글. 홍성표 | 아주대학교 대학원 NCW학과 교수

창석(滄石) **최용덕** 장군

"공군의 사상적,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공군의 아버지"

창석 최용덕 장군은 1898년 11월 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1910년 일본의 국권 침탈이 있자 15세 때인 1913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로 들어섰다.

1920년 북경의 보정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고 조종사가 된 창석은 1924년부터 김원봉, 김한과 함께 무장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1925년 그가 속한 손정방 군벌이 장개석의 국민정부로 흡수되자 중국 항공대의 창설 멤버가 되었다. 이후 창석은 중국 공군 총사령부 참모 등의 직책을 맡아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활약하였다. 1928년 호용국 여사와 결혼하였고, 세 번의 비행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1930년대 창석은 광복군을 위한 폭탄 확보계획 등에 참여하여 김상옥 의사를 지원하는 등 항일무장 투쟁에 앞장섰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창석은 남경에서 중경으로 옮긴 후 남창 공군기지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시정부의 광복군 비행대 창설계획에도 참여했다.

1940년 중국 육군대학을 졸업한 창석은 임시정부 광복군총사령부 참모를 거쳐 1945년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 항공건설위원회 주임, 광복군 참모장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되자 창석은 1946년에 귀국하여 8월 10일 '한국항공건설협회'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모든 항공인들을 출신에 상관없이 포용하면서 공군력 건설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1948년 4월 1일 항공부대 창설 7인의 멤버들 – 최용덕, 이영무, 장덕창, 김정렬, 박범집, 이근석, 김영환 – 은 미 군정의 요구에 따라 조선경비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굴욕으로 여기며 거부하려 하자 50세의 백전노장 창석은 "항공부대가 창설된다면야 병사면 어떻냐. 이순신 장군도 백의종군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항공부대 창설을 위한 일념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하며 솔선수범하여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마친 후 소위로 임관되었고 1개월 후 대위로 진급하였다.

당시 남한에는 약 500명의 항공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조종사는 90명, 나머지는 정비, 통신, 기상 등 기술인력이었다.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인 조종사도 최용덕, 이영무, 장덕창, 김정렬, 장성환 등 5명이나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창석은 초대 국방부차관에 임명되었다. 당시 창석과 신응균 보좌관의 노력으로 국군조직법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시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고 명기함으로써 아직 시기상조라며 무시하던 분위기 속에 공군 독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1949년 10월 1일 공군은 20대의 연락기, 병력 1,616명, 2개 항공기지로 독립하였다.

1950년 5월 창석이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전보되자 곧 이어 6 · 25전쟁이 발발하였다. 7월에 '후방사령본부' 가 공군본부로 통합되자 창석은 김정렬 참모총장의 참모로서 멸공성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창석은 항공기지사령관을 겸직하였고 11월에 공군참모부장, 이듬해 7월 공군작전참모부장 및 공군사관학교장직을 겸하였다. 전쟁 기간중 창석은 공군순보에 '공군인의 나아갈 길' 을 연재하여 공군의 철학적 가치와 항공전략사상을 널리 보급코자 노력하였다.

1952년 12월 1일 창석은 제2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하여 '과학하는 공군, 자립하는 공군' 을 목표로 공군현대화에 주력하였다. 12월 5일 방한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차기대통령,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란트 대장을 만나 '한국 공군 확장계획' 을 논의하였다.

1953년 1월 31일 창석은 김정렬 장군과 함께 당시 공군의 최고계급인 중장으로 진급하였다. 이때는 이미 100회 출격조종사가 20여명에 달했고 공사 1기생이 전투조종사로 출격을 개시하였다. 공군은 휴전될 때까지 2천여 회를 출격하여 351고지 탈환작전을 비롯한 항공지원작전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자 창석은 공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10월 1일 공군의 날 기념식에서 창석은 공군 현대화를 강조한 뒤 1개월간의 미 공군기지 시찰에 나서 베델 스미스 국무장관대리, 탈보트 공군성장관, 트와이닝 공군참모총장 등과 회담을 갖고 한국 공군 발전계획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11월 29일 시찰 결과 기자회견에서 창석은 "북한은 이미 250대의 미그-15와 제트폭격기 40~80여 대, 그리고 100명의 제트조종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겨우 무스탕기 수십기만을 보유하고 있고 제트조종사는 한 명도 없다. 북한과의 전투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다."라고 한국 공군의 실상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였다.

1952년 12월 2대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최용덕 장군(왼쪽)

귀국 후 창석은 공군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1954년에 장교 100여 명을 도미 교육시켰고 8월부터는 일본의 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정비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총 360여 명의 장교가 도미하여 제트기 및 레이더 교육을 받았고 조종사 30명이 동시에 미국에서 F-86F 조종훈련을 받았다.

창석은 1954년 12월 1일 공군참모총장직을 마친 후 1956년 9월 예편하였다. 그의 못 다 이룬 꿈은 김정렬, 장성환, 장지량 장군으로 이어져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총 75대의 F-86F를 인수받아 제11전투비행단을 창설함으로써 공군 현대화가 실현되었다.

창석은 특히 우리가 제작한 국산항공기가 우리의 공역에서 날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1953년 10월 11일 마침내 항공창에서 제작한 '부활' 호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였고, 이듬해 4월 3일 항공기명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활' 휘호를 내렸다. 부활호의 성공은 전쟁으로 침체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웠고 자긍심을 갖게 했다.

창석의 인품은 항공대 창설을 위해 조선경비대 훈련에 솔선하여 백의종군한 것이나, 20년 연하의 김정렬 장군을 초대 참모총장으로 깍듯이 예우한 것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늘 후덕한 인품과 긴 안목으로 중장기 미래를 내다보며 일의 경중과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원숙한 전략가였다.

참모총장 시절 그는 장병들에게 '단결' 한마디를 강조했고 생도들에게는 '공사 십훈'을 가슴깊이 새기게 했다. 장군의 철학적 가치와 사상 및 뛰어난 문학성은 그의 작품인 공군의 결의, 공군가, 공사 교가, 공사 십훈, 은익의 노래, 공군 행진곡 등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하늘은 우리의 고향이요 또 무덤 … 가슴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는 공군가와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공사 교가는 그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군인으로서의 사생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공군의 창설자로서 공군의 사상적,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역사에 빛나는 공군의 전통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공군의 아버지'라 불렸다.

1960년 과도내각에서 잠시 체신부장관을 역임하였고 1961년에는 주중국 대사로 봉직한 창석은 1969년 8월 15일 72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 창공의 영원한 별이 되었다. 그는 평소 '나라를 위해 일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부귀영화를 경원시했다. 오랜 고위공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장군은 말년까지 전세방에서 검소한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모범적인 청백리였다. **AF**

1954년 공군력 증강 문제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최용덕 장군의 모습

공중과 지상을 넘나드는 공군 전술항공통제사(TACP)의 생활

한 공군 요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서 실시된 전투임무 준비태세 평가 훈련에서 C-130 Hercules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도널드 갠스버거(Donald Gansberger) 중사는 그날 눈앞에 펼쳐졌던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외진 산악지역의 협곡, 북쪽 방향에서 화기 사격이 소나기처럼 퍼붓는 가운데, 탈레반 무장세력들은 로켓추진 수류탄과 중기관총을 측면에서 발사하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미군 전투요원들은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갠스버거 중사는 신속히 자신의 라디오 무전기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였고, 몇 분이 지나자 A-10 썬더볼트 항공기가 상공에 나타났다. 적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격을 퍼부은 우군의 항공지원에 힘입어, 반란군들은 이내 소멸되었다. 포연이 사라지고 난 뒤, 우군 전투병들은 갠스버거 중사에게 다가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감사의 한마디를 남겼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집에 돌아가 우리 딸을 볼 수 있게 되었소."

갠스버거 중사는 공군 내 엘리트 그룹으로 불리는 전술항공통제사(TACP)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 기지의 제14항공지원작전대대(ASOS) 소속이며, 부대의 임무는 모든 전시상황 또는 분쟁 발생 시, 공수부대 요원들에게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술항공통제 요원은 치열한 전투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순간적인 판단을 통해 주변의 장병들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그는 각기 다른 고도에서 작전이 가능한 가용 항공기의 목록 및 무장의 종류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우군살상의 가능성을 없애도록 면밀하고도 종합적인 상황 통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합동최종공격통제관(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은 지상군과 함께 작전하는 항공력의 유일한 현장 대변인으로서, 젊은 하사 또는 중사의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지상군 지휘관의 항공력 지원 요청에 반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육군에 배속된 모든 TACP팀은 ROMAD(라디오 운용요원, 정비 및 운전요원), JTAC(근접항공지원 요청을 위해 조종사와 직접 통신하는 자격증을 소유한 전술항공통제관), 그리고 ALO(항공연락장교) 등으로 구성된다. 항공연락장교는 일반적으로 장교 계급이지만, 오늘날 대대급 부대에서는 부사관 또는 병사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각 대대에는 근접항공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대 항공연락장교가 한 명뿐이므로, 그들은 대체자도 없이 항시 대기 및 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제요원들은 야전 임무를 나름대로 즐기는 편이다.

로버슨 하사는 육군들 사이에서 공군 전투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TACP가 전투에 어떠한 보탬을 가져오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버슨 하사는 동료 TACP들 가운데 최고로 여겨지는 전문요원이며, 자

로버트 일병(중간)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열린 전투 임무 준비태세 평가에서 적군의 시뮬레이션 공격에 대하여 동료들에게 후퇴를 외치고 있다. TACP 공군요원들은 제82공정사단의 파병에 맞추어 동등한 정규 훈련을 받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 기지의 제14항공지원작전대대의 한 장병의 전투복에는 육군부대 패치들이 공군 이름표와 패치들과 함께 부착되어 있다. TACP 공군 요원은 육군 동료 병사들과 맞추기 위해 전장지역 및 훈련소에서 다른 전투복을 착용한다.

신이 공군복을 입고 지상 전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군으로서는 전혀 경험해보거나 이해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전 첫 파병 임무에서, 위장 네트를 지급받기 전까지 첫 두 달간 땡볕을 가려줄 차양막 하나 없이 맨땅에서 지내야 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한여름에도 소형텐트 하나 지급받기 힘들어서, 주로 험비 자동차에서 잠을 자곤 했었답니다."라고 말했다.

TACP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씩 파견이 된다. 이후 6개월가량은 자대 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로버슨 하사를 비롯한 제14항공지원작전대대의 요원들은 이러한 휴식을 취할 기회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의 6개월 동안 저희가 집에 귀가하는 일은 약 2~3개월가량에 불과합니다. 잦은 업무 출장, 교육, 무장 및 육군훈련에 참가하다 보면 집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JTAC의 자격을 획득한 후 그 책임은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공군의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육군의 모든 훈련 기준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갠스버거 중사는 JTAC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심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준 능력을 업데이트하고 재평가받아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갠스버거 중사는 "JTAC은 12개월에서 16개월 주기로, 자격 평가를 받습니다. 실무장 폭탄 항공투하 통제 능력, 레이저 투하 시뮬레이션 그리고 무장 및 표적식별 후 무장투하 완료 등 다양한 요소가 심사의 대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저희 요원들은 야간 항공기 통제 및 공수 낙하 등 다른 여러 가지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는 TACP가 극도로 위험하고, 장시간, 스파르타식 근무 조건인 데다가 장기 파병 등이 일상적이어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로버슨 하사는 "저는 결혼해서 두 딸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결혼 7년차이고요, 지난 7년간 저는 집에 있던 시간이 한 3년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로버슨 하사와 갠스버거 중사는 한 집안의 가장인 다른 TACP들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인들도 같은 공군으로서, 파병과 업무출장의 혹독함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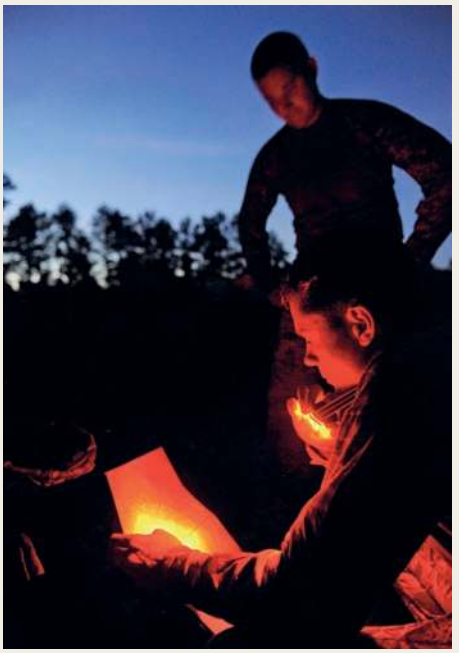
부인인 폴렛 갠스버거(Paulette Gansberger) 중사 역시 서남아시아 지역에 2번 파병이 된 경험이 있다. 폴렛 중사는 TACP를 남편으로 둔 가족들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충분한 대화라고 말한다. 특히 다른 배우자가 군인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저는 특기가 정보 분야라서, 다행히 남편과 연락을 유지하기 훨씬 수월합니다만,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장기간 파병을 나가고, 더욱 위험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파병의 경우, 저희는 온라인으로 거의 매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그런 행운이 없었죠."

그녀의 남편인 갠스버거 중사는 이러한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와 인생을 설계할 때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갠스버거 중사는 "저희 부부는 결혼식 3개월 전에 각각의 파병시기를 조율해 보려고 했습니다. 부부 동반 근무 혜택을 얻기란 매우 어려웠거든요.

크리스토퍼 소령(좌측), 브래들리 중위(중간)와 타일러 대위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 기지의 임무전투준비태세 평가 시, 지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 공군 병력은 제14항공지원작전대대에 소속된 항공연락장교들이다.



브래들리 중위(앞쪽)와 커츠 중위가 포트 브래그 기지의 전투임무준비태세 평가에서 야간 지상 항법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들 공군 요원들은 제14항공지원작전대대에 속한 항공연락장교들이다.

저희가 결혼한 이후, 한번도 동시에 파병을 가본 적은 없지만, 항상 둘 중 하나는 해외 파병을 나가 있어, 지난 3년간 저희 가족 세금 신고에는 항상 파병이라고 적어 제출을 했답니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TACP 요원들은 자신들이 녹색(육군)과 청색(공군)의 중간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많은 공군 TACP 요원들은 파병 후, 텍사스 주의 포트 후드, 켄터키 주의 포트 캠벨 또는 뉴욕 주의 포트 드럼과 같은 육군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

매트 트림블(Matt Trimble) 하사는 "저는 공군입니다. 아무도 저를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육군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들과 같은 베레모를 쓰고, 그들과 생활하는 군인입니다. 공군에 저희와 같은 일을 하는 장병도 드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맥노튼 하사는 고난도 훈련과 전투 현장의 열기 속에서 우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항공력을 통제하여 적군을 섬멸하는 TACP의 임무가 공군에서도 으뜸가는 전문분야라고 자부심을 밝혔다.

"저희의 임무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직업이고, 당연 공군에서 최고의 요직입니다."라고 그가 전했다. **AF**

글. 김대영 |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 월간「디펜스 타임즈 코리아」편집위원

테러와의 전쟁 ③

불운의 주인공 **토네이도 전투기**

사막의 폭풍작전

Operation Desert Storm

1991년 1월 17일 새벽 미군과 다국적 군은 이라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철군 시한을 어기자,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명명된 대규모 공습작전을 실시한다. 미군과 다국적 군의 최신예 전투기가 총동원된 공습작전은 이후 30여 일간 지속되었으며, 이라크 상공의 제공권은 미군과 다국적 군의 손에 넘어 가게 된다.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117을 필두로 각종 최신예 전투기들은 뛰어난 성능을 뽐냈고,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TV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위력을 대중에게 유감없이 선보였다. 그러나 이들 전투기 가운데서도 불행한 전투기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유럽 3개국이 공동 개발한 토네이도(TORNADO)였다.

유럽을 대표하는 전폭기 01

토네이도 전투기는 임무에 따라 대지공격형인 IDS, 요격기인 ADV 그리고 전자전 및 정찰형인 ECR로 분류된다. (사진출처 미 공군)

돌풍이라는 별칭을 가진 토네이도는 영국, 서독,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이다. 지난 1969년부터 연구 개발이 진행된 토네이도는, 1974년 8월에 최초의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1976년 6월 3개국은 800여 대의 토네이도 전투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1979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토네이도 전투기는 임무에 따라 대지공격형인 IDS(Inter Dictor Strike), 요격기인 ADV(Air Defence Variant) 그리고 전자전 및 정찰형인 ECR(Electronic Combat Reconnaissance)로 분류된다. 쌍발의 터보팬 엔진과 가변익을 채용한 토네이도 전투기는, 지난 1980년대 중반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에 후보기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요격기인 토네이도 ADV 전투기는 모두 퇴역한 상태이며, 토네이도 IDS와 ECR 전투기는 지금도 현역에서 활약 중이다. 특히 토네이도 IDS 전투기는 오늘날까지도 유럽을 대표하는 전폭기로 알려져 있다.

토네이도 IDS와 ECR 전투기는 지금도 현역에서 활약 중이다. (사진출처 미 공군)

저고도 폭격의 달인 02

쌍발의 터보팬 엔진과 가변익을 채용한 토네이도 전투기는 뛰어난 저고도 비행 능력을 자랑한다. (사진출처 미 공군)

토네이도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네이도 IDS 전투기는, 냉전시절 구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기갑전력과 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당시 구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방공망을 자랑했다. 이 무렵 유럽은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고,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형지물을 따라 저공으로 침투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토네이도 IDS 전투기는 저고도 고속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기체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밀항법체계와 자동 지형추적장치 등을 장착했다. 또한 기체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 1회의 목표지역 통과로 다수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자탄 살포기를 개발해 운용했다. MW-1 자탄 살포기를 장착한 토네이도 IDS 전투기는 목표상공을 200피트(ft)(약 60m) 고도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면서, 좌우 양쪽으로 200여 발의 소형 폭탄을 살포해 폭 185m, 길이 500m의 넓은 지역을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최초의 실전 참가 걸프전 03

MW-1 자탄 살포기를 장착한 토네이도 IDS 전투기는 1회의 폭격으로 폭 185m, 길이 500m의 넓은 지역을 단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사진출처 독일 공군)

걸프전이 발발하자 영국과 이탈리아 공군 소속의 토네이도 전투기가 다국적 군의 일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으로 배치되었다. 영국 공군은 영국 공군 사양의 토네이도 IDS형인 토네이도 GR.1과 요격기인 토네이도 ADV 60여 대를 파견했으며, 이탈리아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10대의 토네이도 IDS를 국외 파병했다. 홍해 인근에 배치된 토네이도 GR.1 전투기들은 홍해 해상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사라토가호의 갑판보다 낮은 높이로 비행하며, 토네이도 전투기 특유의 저고도 침투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미 해군 조종사들은 토네이도 전투기의 저고도 비행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덫에 걸린 토네이도 04

영국 공군은 영국 공군 사양의 토네이도 IDS형인 토네이도 GR.1를 주축으로 60여 대의 토네이도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배치했다.
(사진출처 미 공군)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되자,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1 전투기는 특유의 저공비행능력을 살려 이라크 군의 공군기지 폭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일부 토네이도 GR.1 전투기는 활주로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JP223 자탄 살포기를 장착했다. JP223 자탄 살포기에는 활주로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내는 SG-357 폭탄과, 활주로 복구를 방해하는데 사용되는 대인 지뢰인 HB-876을 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 군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라크 군은 정형화된 토네이도 GR.1 전투기의 전술을 전쟁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라크 군은 활주로를 따라 촘촘하게 대공화기들을 배치했고,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1 전투기가 나타나자 그들의 진행방향으로 무지막지한 대공포화가 불을 뿜어댔다.

2003년 이라크 전에서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4 전투기는 순항 미사일인 스톰 쉐도우를 발사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하였다.
(사진출처 영국 공군)

토네이도의 수난 05

사막의 폭풍작전에 참가한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ADV, GR.1 전투기와 버캐니어, 재규어 공격기
(사진출처 영국 공군)

사막의 폭풍작전이 시작된 1월 17일,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1 전투기가 이라크 군의 SA-16 이글라(Igla)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5대의 토네이도 GR.1 전투기가 격추되었다. 이 중에는 JP233 자탄 살포기를 사용하다 격추된 토네이도 GR.1 전투기도 있었다. 이탈리아 공군의 토네이도 IDS 전투기 1대도 이라크 군의 방공망에 격추된다. 토네이도 전투기의 손실이 늘어나자 저고도 폭격은 중지되었고, 20,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폭격하는 것으로 전술을 변경한다. 이후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1 전투기들은 고공에서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네이도 GR.1 전투기에는 레이저 유도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공군은 퇴역시키려고 했던 버캐니어(Buccaneer) 공격기를 긴급히 파견하여 레이저 유도기로 사용해야만 했다. 걸프전 기간 동안 토네이도 전투기는 10:1의 비율로 격추되었으며, 걸프전에 참가한 다국적 군 전투기 가운데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하게 된다.

전화위복(轉禍爲福) 06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1 전투기는 특유의 저공비행능력을 살려 이라크 군의 공군기지 폭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사진출처 영국 공군)

걸프전 이후 정밀 유도 무기가 항공전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3개국에서 운용 중인 토네이도 IDS 전투기들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량되었다. 이렇게 개량된 토네이도 IDS 전투기들은 걸프전 이후 벌어진 각종 전쟁에서 눈부신 전과를 기록한다. 특히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4 전투기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로는 최초로, 실전에서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인 스톰 쉐도우(Storm Shadow)를 발사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대리비아 공습작전인 엘라미 작전에서는 12발의 브림스톤(Brimstone)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영국 공군의 토네이도 GR.4 전투기 1대가 12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여 카다피 군의 전차와 장갑차 10여 대를 파괴하였다.

 글. 김경섭 | 한국리더십센터그룹 회장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을 도와주자

LEADERSHIP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매번 약속하지만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88만 원 세대라는 뼈아픈 현실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구직 행렬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특히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의대와 치대 입시에 매달리는 학생들, 원하지도 않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노라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세상은 이미 평생직장 시대에서 평생직업 시대가 되었는데, 사명감은 없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직업을 택하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 사이에는 만족감과 생산성, 성과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하루의 75% 이상을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직업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쓰는데,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들과 두 딸에게 자신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경험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들이 대학 2학년 때까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심정을 토로할 때였다. 나는 일단 아들에게 휴학을 권하고 1년간 국내와 외국을 여행하면서 평생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큰 딸이 예일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이었다.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대상을 찾고 있을 때 나는 딸에게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딸은 당시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워싱턴 사무실에 일하는 정식 선거운동원이 되고 싶은데, 자리가 다 차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나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써줄 것 같으냐?"고 물었다. 딸은 아마도 무급으로 일한다고 하면 써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나는 딸에게 선거운동본부에서 정식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했고, 딸은 여름방학 중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는 원하는 자리는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딸에게 일단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조언했고, 졸업 후에도 좋은 자리가 주어져 취직할 수 있었다. 결국 그 때의 조언이 딸에게 평생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 막내딸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나의 경험을 돌이켜볼 때, 요즘에 1~2년 정도는 의식주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도 봉급만 주면 취업하겠다는 젊은이들과 부모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 얼마 전에 'Future Leader'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평생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먼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정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 일을 잘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직장을 골라 문을 두드리되, 만약 자리가 없다고 하면 무급으로 3~6개월 동안 일하겠다고 제안하라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기업체 사장들과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이런 경우라면 젊은이들의 평생직업을 위해 기꺼이 채용하겠다고 답을 들었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을 다해 일하는 청년이 있다면 3~6개월 동안 무급으로(연수기간 이전이라도) 기꺼이 채용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늘어가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이런 상상을 해 본다. 청년들은 꿈과 평생직업을 찾아 3~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배우고 경험하고 봉사하고, 직장은 훈련과 교육비용 없이 무급으로 봉사를 받는다. 이는 기존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익이 창출된다. 결국 6개월의 노력과 봉사가 취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열정을 다해 평생을 바칠 '꿈과 평생직업'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기성세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AF**

가을, 책, 그리고 공군…
* 기획특집

참모총장 스케치
* 포토프레임@AF

2012. 10. NEWS
* Air Force Monthly

고마워, 우리를 기억해 줘서
* 생각하는 그림

구자철 선수 근황
* 공군 홍보대사 Zoom In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이글 에어쇼
* Photo Sketch

공군IN

 글. 편집실 **사진.** 중사 양순호 | 공군본부 미디어 영상팀

가을, 책, 그리고 공군...

책과 함께하는 공군인의 가을나기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지요. 월간「공군」10월호 기획특집은 '책 읽는 공군'입니다. 공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독서에 대한 갈증과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사람, 책을 읽고 싶다는 의지만 있고 실천이 안되는 사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 등등 책에 대한 고민은 개인마다 개별적이고 다양합니다. 월간「공군」의 10월호 기획특집 '책 읽는 공군'은 이러한 장병들의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독서를 고민하는 장병들을 위한 제안, 책을 재미있게 읽어가는 방법, 군 생활 중 독서가 필요한 이유 등 독서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책 읽는 공군' 시작합니다.

글. 대위 장동하 | 20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Chapter 1

군대에서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책마을' 필자 장동하 대위가 장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책이 희망이다

지난달 결혼 2주년을 맞아 아내가 전자책을 선물해 주었다. 포장을 막 뜯으며 기뻐하는 내게 아내는 "그거 하나에 수천 권의 책을 담아서 읽을 수 있데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매번 부대를 옮길 때마다 수십여 개의 책 상자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쓰러웠나보다. 사실 결혼 초 30여 개가 넘는 책 상자 때문에 아내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나로서는 아내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고교 시절 문학동아리 활동과 대학 시절 문예창작을 전공한 나에게 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였다. 대학 졸업 후 군에 입대해서도 비행을 하던 잠깐의 시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정훈장교로 살면서 책과 가까이 하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3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를 집필하면서 참고하기 위해 구입한 책들만 커다란 책꽂이 두 개를 다 차지하고도 남는 데다가 지난해부터 월간 『공군』의 책소개 코너인 〈책마을〉을 쓰면서 사모은 책들만 30여 권이 넘으니 고교, 대학 시절의 책들까지 모두 합하면 과장된 표현으로 이삿짐의 절반을 책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신혼 초 아내가 "이 많은 책들이 다 필요하기는 한 것이냐."며 투정을 부릴 만도 하다. 그러나 나는 이 많은 책들을 버릴 수도,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 내게 수집벽(收集癖)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책들이 나의 혼란스럽고 괴로웠던 20대를 함께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고교 시절 가난에 허덕이며 집에 쌀이 없어 학교 수돗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던 기억, 대학 등록금이 없어 원하지 않던 재수와 삼수를 해야만 했던 기억, 그리고 입대 후에는 항공성 중이염으로 조종사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기억 속에서 나를 지켜준 유일한 희망이 바로 책이었다. 책 속에 나의 꿈이 있었고, 책 속에 나의 미래가 있었다. 책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평온해졌고 읽다가 쌓아놓은 책들이 성을 이뤄 그 안에서 잠든 날도 있었다. 어두운 터널을 정신없이 헤매던 20대 시절 책만이 나에게 유일한 빛이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였다.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의 무게는 내 청춘의 삶의 무게와 같은 질량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병사들이 군대를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이별, 사회와의 단절 정도로 인식하며 입대한다. 그러나 군은 결코 젊은이들을 가두고 억압하는 공간이 아니다. 병영 역시 사회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곳이다. 다만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속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나갈 것을 권유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독서를 추천한다. 전역 후 사회에 나가면 전공서적을 제외하고는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 시기의 독서야말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전역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읽고 내려놓다 보면 어느덧 그들이 들고 있는 고민의 짐과 그 삶의 무게를 책과 함께 내려놓고 더욱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글. 권현숙 | 소설가, 창공클럽 회원

Chapter 2 공군인을 위한 책 읽기 스타일 제안

창공클럽 회원 권현숙 소설가의 책 읽기 비법

책하고 절친되기 어렵다고?

그건 사실이죠. 소위 작가라는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렇다고 안 읽을 수 없는 게 또 책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라도 책을 읽고 책을 써야 하는 내가 터득한 요령이 있는데, 살짝 귀띔해 줄까요?

첫째, 〈지금 가장 필요한 책을 읽어라〉

사랑에 빠졌나요? 짝사랑하는 그녀가 있나요? 솔로지만 왠지 사랑의 예감이 있나요? 그럼 당근 사랑에 대한 책이죠.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머리에 쏙 들어올걸요. 몸과 마음이 한마음으로 원하는 아이템이니까요.

잠깐, 이 세상 모든 소설은 거의, 대부분, 대체로 사랑에 대한 책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검증된 고급 작품을 읽는 게 좋단 말이죠.

가령 '닥터 지바고', 아, 이건 정말 기막힌 연애소설이에요. 대부분 영화로만 보셨겠지만 큰맘 먹고 소설 지바고를 펼쳐보세요. 두근두근, 짜릿짜릿, 조마조마...그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에 대하여, 여자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터득하는 게 꽤 있을 걸요. 게다가 우리 '꽁짜' 좋아하죠? 좋은 책 속에는 공짜가 정말 많답니다. 지바고 속에는 러시아의 자연풍경(광활 장쾌한 묘사, 완전 압권! 실제로 다녀온 사람보다 더 잘 알게 되죠.) 혁명의 의미, 러시아 역사...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할 목록들이 덤으로 딸려온답니다. 정말 공짜로 막 퍼준다니까요.

사랑을 예로 들었지만, 뭐 많잖아요. "옆에 전우랑 잘 지내고 싶나?" 그럼 우정, 전우애 등을 소재로 한 책을. 앞으로의 진로가 고민이라면, 각 분야의 인생 선배가 미주알고주알 경험담을 털어놓은 책을 추천해요. 책 제목? 왜 그래요, 검색 도사면서.

※ 결론 : 현재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과 연관 분야의 책을 읽는다.

둘째, 〈책은 지저분하게 읽어라〉

참고서가 깨끗한 사람, 공부 안 한 거다. 책이 깨끗한 사람, 헛 읽은 거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참고. 들어주세용), 우선 몇 가지 색깔이 다른 형광펜을 곁에 두고 책을 펴요. 읽다가 기억해 둬야 할 것–연두색, 기막힌 문장–오렌지색, 인용할 것–하늘색, 그리고 독서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은 책 여백에 마구 휘갈겨 써넣기도 하지요.
공부할 때 참고서에 밑줄 쳐 놓은 것 나중에 보면 기억이 되살아나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감명 깊게 읽은 책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니까. 기껏 읽은 책, 다 까먹으면 억울하잖아요. 메모해 놓은 걸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생각도 했구나, 다시 입력이 되면서 꽤 뿌듯할걸요.
※ 결론 : 책에 내 흔적, 내 생각을 남기자.

셋째, 〈책을 핸폰처럼 곁에 두어라〉

자나깨나 내 옆에 있는 거, 핸폰. 애인보다 더 가깝게, 언제 어디서나 내 곁에 있는 존재, 핸폰. 책을 바로 그렇게 곁에 두는 거예요. 전화가 안 와도 핸폰 들여다보는 것처럼 무심코 책을 펴게 되거든요. 그럼 된거죠. 하루에 한 쪽, 아니 한두 줄만 읽어도 일 년이면 그게 얼마야. 가랑비에 옷 젖듯 책과 친해지는 거예요.
손때 묻고 모서리가 헐고 메모가 가득한 정말 '내 책'은 오래 입어서 내 몸 형태와 똑같이 늘어진 헌옷만큼이나 편하고 흉허물이 없지요. 화장실에도 데려가고 침상에 누워서도 보고 졸리면 베개처럼 베고 자도 되고. 꼭 시간 내서, 자세 잡고 앉아서, 집중해서,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한 쪽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고요. 제발 그런 책이 있기를...!
※ 결론 : 책과 핸폰을 함께 곁에 둔다.

넷째, 〈책으로 최강 스펙을 만들어라〉

책은 공부도 교사도 아니에요. 특히 '필독서 100선' 이런데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거기 있는 책 다 읽은 사람 없죠, 아마. 그런데 세상에 많고 많은 책 가운데 가리고 가려서 뽑힌 책들이라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인류역사에 출현한 엄청난 천재들 중에 내 맘에 드는 best of best를 뽑는 거에요. 재미있고 소화가 되는 것들로. 10권? 많아요? 그럼 반으로 줄이죠 뭐.(귓속말; 제목만 보면 엄청날 것 같은 무서운 책들, 무섭지 않아요. 막상 읽어보면 쉬워요. 정말^^)
그렇게 천재 몇을 곁에 두고 읽었다, 과연 무슨 실익(實益)이 있을까요?

권현숙 소설가

우선 여자친구가 자랑스러워하죠. 이거 꽤 폼 나고 괜찮지 않아요?
(여자는 자신보다 '레벨 업'해 보이는 남자에게 확 끌려요. 외모, 지식, 돈 중에 자기는 뭘로 레벨 업할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진짜 중요한 건 그 수준의 책을 읽고 나면 책이 안 무서워진다는 거, 책이 만만해진단 말이죠. 어떤 책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독서력(讀書力), 그러니까 '책근육'이 붙는 거예요. 난 그걸 (내맘대로) 독서복근이라고 부르지요.
땀 뻘뻘 흘리며 닭가슴살만 질리게 먹고 만든 초콜릿 복근, 방심하는 순간 배둘레햄으로 변하는 거 알죠? 독서복근은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없어져요. 한번 만들어두면 평생 철밥통. 투자할 만하죠. (사실 돈도 안 들잖아요.)
사회에 나가봐요. 멋진 슈트와 각종 무시무시한 스펙으로 중무장한 경쟁자들이 우글우글할 테니. 근데, 그거 알아요? 최강 스펙은 단연 책이라는 거. 책 속에 길이 있다. –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복근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게 슈트 속 실상이니까.
독서복근만 있으면, 쟁쟁한 경쟁자들이 결국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강 스펙의 소유자가 된답니다. 성공한 사람들, 하나같이 독서광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들은 멋진 슈트뿐 아니라 그 속에 독서복근까지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철밥통 최강 스펙 하나 길러보자구요.
※ 결론 : 독서복근은 평생 복근이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이한아 | 프리랜서

Chapter 3 공군인이 알아야 할 도서관 정보 大방출

이제 핑계는 NO!

누군가 독서에 대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도서관이 너무 멀다", "병영도서관에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 "군대에서는 책읽기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핑계만 대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코너. 공군인이 알아야 할 도서관 정보!

〈기본코스〉
병영도서관

2012년 기준 공군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영도서관은 자그마치 119개다. 거의 전 부대에 도서관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행단뿐만 아니라 관제대대, 방공포대 등 격오지에도 병영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군 전체 병영도서관이 보유한 장서만도 무려 45만 5천여 권이며, 신규 도서구매에 사용되는 1년 예산만 1억 6천 8백만 원에 달한다. 장병들이 원하는 도서가 모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한 규모다. 또한 31개 부대에서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도서관 수준의 고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의 불편함도 전혀 느낄 수 없다.

〈읽고 싶은 책이 없다고 절망하는 당신〉
이동도서관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이 병영도서관에 없더라도 절망하지는 말자. '이동도서관' 제도를 이용하면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이동도서관'은 병영도서관에 없는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해 빌려주는 제도다. 많은 부대에서 지역 도서관과의 합의를 통해 실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대출에 필요한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는 점만 감안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신간도서를 마음껏 빌려볼 수 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인 당신〉
금주의 추천도서 서비스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간들 속에 어떤 책을 선택해 보아야 할지 고민하는 장병들이 있다면 '금주의 추천도서 서비스' 이용을 권한다. 인트라넷 공군본부 〈독서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금주의 추천도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자소개와 도서내용 요약, 추천의 말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공식 추천 페이지 말고도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자신이 추천하는 도서를 올려주기 때문에 많은 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주 1권씩 업데이트되는 책들만 읽어도 1년에 5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당신〉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업무에, 운동에, 육아에, 회식에... 책 읽을 시간을 내기 힘든 공군인이라면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도서요약 전자도서관은 책 전체 의 내용을 엑기스만 뽑아 A4 10장으로 축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총 5,000여 권의 도서가 경제경영, 인문교양, 한국문학, 해외문학 등 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어 자신이 관심있는 도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산재부서라서 도서관 가기가 어려운 당신〉
E-BOOK

도서관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독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장병들을 위한 E-BOOK(전자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트라넷 공군본부 〈독서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051종의 전자책을 대여해 볼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전자책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로 책을 볼 수 있다. 최대 2권, 1주일간 대여가 가능하고, 예약제도도 운영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책 읽기가 귀찮은 당신, 그럼 들어볼래요?〉
오디오 북

마지막으로, 책 읽기가 귀찮은 장병들을 위한 귀로 듣는 책, 오디오 북도 준비되어 있다. E-BOOK과 마찬가지로 인트라넷 공군본부 〈독서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 디오북을 통해 원하는 책을 귀로 들을 수 있다. 멀티 태스킹이 가능한 장병이라면 책을 들으면서 다른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글 · 사진. 편집실

Chapter 4 공군의 조금 특별한 독서문화

도서관 가을 이벤트

올 가을 공군 장병들을 책과 더욱 친숙하게 이끌어 줄 행사와 이벤트!
공군본부를 비롯한 부대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만 잘 활용해도 올 가을 멋진 책 한 권과 함께 보낼 수 있다!

공군본부 독서 주간 운영

공군본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독서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먼저 야간에도 장병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는 「책 빛 밝은 밤」 행사를 비롯해 장병들로부터 독서 퀴즈를 응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또한 행사 주간동안 100, 200번째 대출자와 금년도 도서관 이용자 중 최다 대출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다독상', '행운상' 시상식도 가졌다. 이와 더불어 장병들로부터 책(2009년 이후 발행된 훼손없는 도서)을 기증받는 '이용자 책 탑쌓기' 행사도 함께 개최해 장병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다독상', '행운상' 시상식에는 군악대의 실내공연도 곁들어져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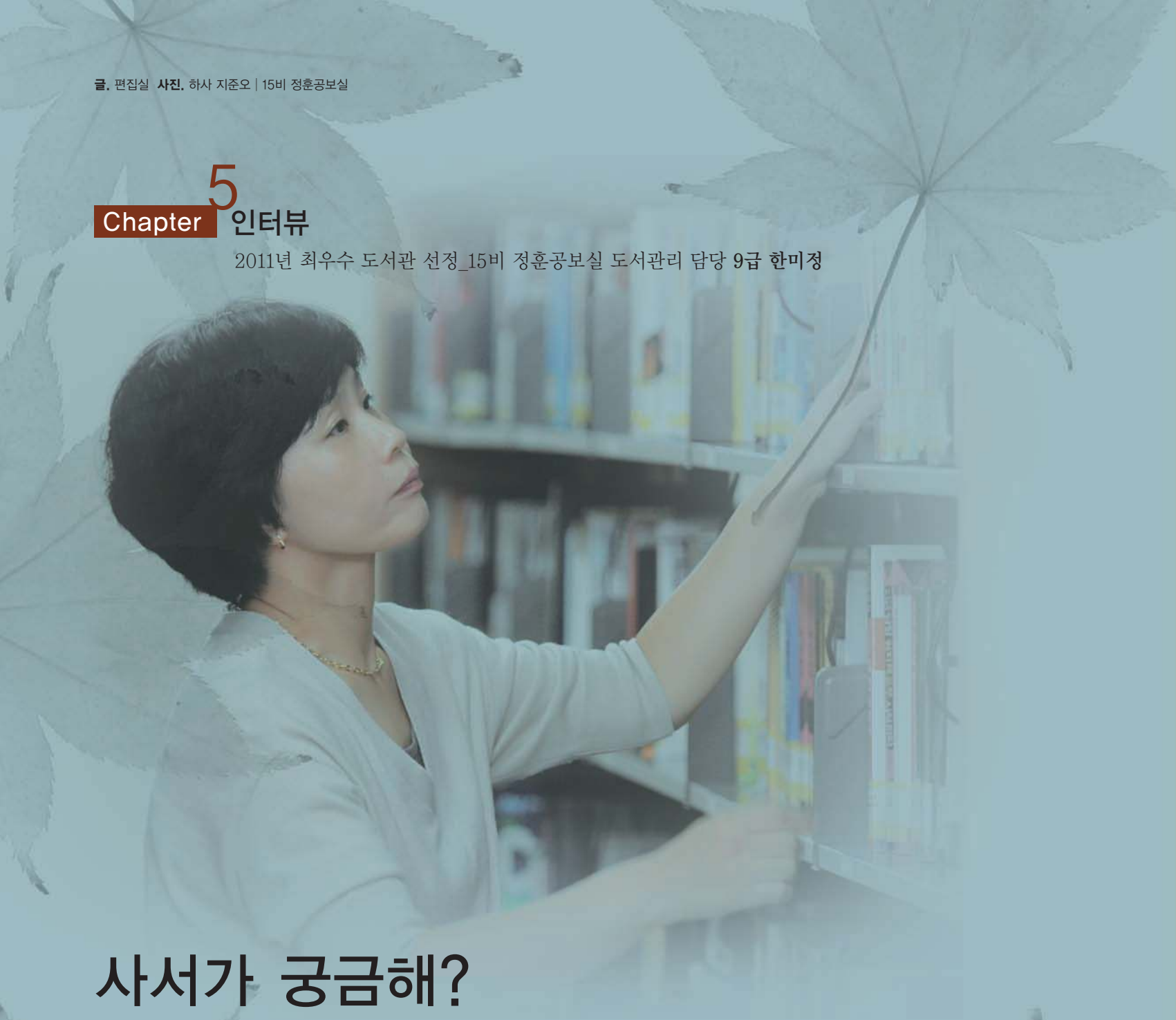
책읽기를 넘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병영도서관

이제 공군의 병영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에서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전투비행단은 가을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먼저 9월 13일에는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독서코칭 프로그램'이란 강의를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사전에 토론할 책자를 제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 당일 독서 전문가가 직접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이 읽은 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과 함께 독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다. 더불어 1전투비행단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광역시와 연계한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병영 독서활동'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 보는 북아트 행사, 책을 기증하는 책나누리 행사도 함께 펼치고 있다. 1전투비행단뿐만 아니라 공군의 여러 부대에서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책과 친숙하지 않은 공군 장병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글. 편집실 **사진.** 하사 지준오 | 15비 정훈공보실

Chapter 5 인터뷰

2011년 최우수 도서관 선정_15비 정훈공보실 도서관리 담당 **9급 한미정**



사서가 궁금해?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15혼성비행단 기지도서관에서 '도서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는 한미정 주사입니다. 2007년 7월 1일 임용되어 군무원으로서의 첫 보직이지만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업무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비전공자입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 근무했던 도서관 건물은 종교시설로 법당으로 사용하다가 이전하고 남은 빈 건물을 재활용해서 책방으로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낡을 대로 낡아서 지붕의 기와는 깨져서 무너져 내릴 정도였는데, 제가 처음 보았던 그때는 장마철로 천장에서 빗물이 그대로 떨어져서 대야로 받치고 우산을 쓰고 앉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쌓아놓은 책들은 서로 엉겨 붙어있고, 서가라고 꽂아 놓은 책들은 먼지와 각종 오물과 곰팡이가 뒤섞인 그야말로 뭐라 말할 수 없는 더미였습니다. 일주일을 앉아 있어도 단 한 명의 병사가 찾지 않고, 공군15혼성비행단에 도서관의 존재 여부조차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저 옛날 법당이라고만... 구전되는 곳이었죠. 지금의 우리 한성사랑도서관은 쓰레기더미 위에 이룬 기적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자서전을 써도 될 겁니다.

Q 군내에서 도서관리 담당(사서)을 하는 보직이 흔치 않은데, 보직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도서관이 병영생활과 단절된 사회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잘 갖추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갈등을 채워주는 것이 궁극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내 도서관리직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되고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15비 도서관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15비 도서관의 대표적인 독서활동으로 "책 읽는 비행단" 캠페인이 있습니다. 장병들의 독서장려 캠페인으로 연(年) 단위로 운영, 캠페인 활동내용은 해마다 수정 보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캠페인은 2008년부터 시즌 1, 2010년 시즌 2, 2011년 시즌 3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 실시 이후 병영도서관 이용자와 대출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장병 개개인의 실질적인 독서량 증진과 병영도서관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15비 도서관의 향후 발전계획을 들려주십시오.

A 이제부터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간도서가 지속적으로 반입되어 부대 장병들의 여가선용이나 문화생활과 정보제공에 앞장섬과 동시에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영상자료)의 보유와 이용 도서관 기능을 확대시키는 노력, 도서관 이용 편의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이용 인구를 늘려나가는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책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BX처럼 그냥 하루에 한 번은 꼭 들러야 되는 곳, 편안한 곳, 군부대 병영인지 알 수 없는 곳, 이것저것 숨겨진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젊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들락거리는 사랑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Q 이 일을 하시는 소감은 어떠십니까? 어떤 계기로 일을 하게 되셨나요?

A 저는 남매를 혼자 키우는 가장입니다. 군 가족으로 십여 년 성남비행장에 살다 보니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추억이 어울려 있는 이곳에서 남은 임기를 채우고 미력하나마 조직(공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군무원으로 남았지만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서관리직 내지 사서하면 으레 스캐너로 바코드나 찍어주는 일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 천상의 선녀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시고 부대의 일부 관심병사들은 도서관에 오고 싶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책들을 서가에 꽂는 사람, 책 한 권에 붙어있는 여러 개의 바코드와 표식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숫자 표식으로 책을 분류하는 사람, 전산망으로 쉽게 책이 검색되도록 서지사항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서들입니다. 한 번에 대여섯 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바로 병영도서관의 '도서관리'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도서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만 분명 매력은 있습니다.

Q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당연히 도서관에 장병들이 우글우글 많을 때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컴컴한 굴속 같았지만, 청소도 하고 서가정리도 하고 신간도서 30권 들여 놓고 혼신의 노력(?) 끝에 도서관 비슷한 모양을 갖추자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교대 근무를 마친 헌병이었습니다. 두꺼운 솜장갑을 끼고 손을 불면서 도서관 맨바닥에 앉아 아침 8시에 와서 반나절을 책을 보다 갔는데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서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더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때입니다. 내 동생, 내 아들들이 군복무 중에 즐거운 상상을 하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말이죠.

Q 장병들에게 도서관리 담당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A 도서관 업무는 크게는 서비스, 복지 맞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도서관리가 집에 계신 엄마, 애인 내지는 아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찾는 책을 바로 찾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고, 웃지 않는다고 불친절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도서관 책을 정리 안 한다고 청소 좀 하라고 화내시고... 서비스 참 어렵습니다. 도서관리는 다양하고 유용한 도서자료를 선정해서 도서관에 반입시키고 이를 잘 분류정리해서 소속부대 장병들이 잘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질의 도서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병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을 '나의 도서관'으로 생각하고 아끼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작지만 사소한 매너가 여러분을 매력 있는 신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병영도서관 관리자들은 밖의 시립 내지 구립 공공도서관처럼 지원이 빵빵한 곳이 아니라 부대 한 켠에서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며, 병사 여러분의 답답한 군복무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보람된 젊은 시절이 되기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환하게 웃으며 필승! 하고 소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AF**

포토프레임@AF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이글 에어쇼, 감동 재현하다

참모총장은 9월 1일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이글 에어쇼를 주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석상관으로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군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지역주민 등 6,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블랙이글 에어쇼를 관람한 대통령께서는 블랙이글 조종사들에게 훈장과 포상을 직접 수여하셨으며, "대한민국은 우리 공군이 지킨다는 확고한 각오를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포토프레임@AF

2012 UFG 연습 참가 한미 장병 따뜻한 격려

참모총장은 8월 30일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2012년 UFG 연습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주아스 사령관을 포함한 美 7공군 장병들과 한국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공군은 정기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어떤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합공군전력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토프레임@AF

공군 – 기상청 MOU 체결

참모총장은 9월 7일 기상청을 방문해 공군과 기상청 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참모총장은 "국민들에게 늘 좋은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상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공군과 기상청 간의 업무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IR FORCE MONTHLY

2012. 10. NEWS

태풍 피해 대민지원 총력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공군은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대민지원은 참모총장의 특별지시로 이루어졌으며, 9개 부대 1,0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해 벼세우기, 낙과수거, 유실도로 복구, 방역 및 의료지원 등을 실시했다. 특히 참모총장은 지난 9월 19일 공군본부 장병 250여 명을 직접 이끌고 계룡시 엄사면 지역 농가 벼세우기 작업을 도왔으며 "연이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슬픔을 이겨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사랑 순회 전시회 개최

장병 독도사랑 정신 및 안보의식 함양

공군은 장병들의 독도사랑 정신 및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계룡대 본청에서 독도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의지', '아름다운 독도 우리의 땅', '대한민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F-15K 전투기 초계비행 사진을 비롯한 독도의 사계절 풍경이 전시되어 장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천상필 대령, 전군 최초 국가생산성대회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항공기 가동률 향상, 비행 안전관리 등 노력 인정받아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천상필 대령이 제36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개인으로는 전군 최초로 모범근로자 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천 대령은 임관 후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비행 안전관리 등 군수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6년 말 17전투비행단 군수전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57.1%로 하락한 F-4E 가동률을 2년 만에 97%까지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룬 바 있다.

5전비, 해양경찰청 소속 조종사 초청 교육

하늘과 바다, 함께 지켜요!

5전비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 남해 해양경찰청 소속 CN-235 조종사, 정비사 및 전탐사를 부대로 초청해 비행대대 및 정비부서의 기본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같은 기종(CN-235)을 운영하고 있는 공군 5전비와 해양경찰청 간의 주요 작전수행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해양경찰청 소속 조종사 2명 등 총 6명이 참가했다.

18비 112대대, 5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16년에 걸쳐 3,150만km 비행

지난 8월 31일 18비 112대대가 5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96년 11월 이후 약 16년에 걸쳐 수립된 기록은 지구 둘레 780여 바퀴를 돈 것과 같은 거리이다. 112대대는 무사고 비행을 위한 조종사 개인별 기량향상 및 자질관리, 조종사와 관제사가 함께하는 CPT 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대장 김대회 중령은 "빨간마후라의 고향에서 대기록을 달성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1비, '이달의 연비왕' 제도 시행

연비 절약률 높은 부서 선발해 포상

11비는 친환경 · 저탄소 녹생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의 연비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의 연비왕'은 업무용 승용차 운영부서 중 연비 절약률이 가장 높은 부서를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연비왕 제도를 기획한 11비 수송대대장 윤종식 중령(진)은 "고유가 시대에 에코드라이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병들이 경제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자리잡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마워, 우리를 기억해 줘서

1969년, 가구점에서 일하며 함께 살던 앤서니와 존은 영국 런던의 어느 백화점에서 6개월된 어린 사자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홍보용으로 판매하고 있던 귀엽고 자그마한 사자는 두 청년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이들은 이 아기 사자를 구입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정원이 딸린 넓은 집도, 한적한 외곽의 시골집도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사자와 함께 뒹굴고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사자는 원래 무서운 맹수이지만, 두 청년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으며 자라난 크리스티앙은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가고 애교도 많은 애완동물로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티앙의 몸집은 두 청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1년 만에 몸무게가 무려 83kg에 이르렀고, 크리스티앙이 움직이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산산조각나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집에 크리스티앙을 가둬놓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앤서니와 존은 야생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는 험난한 삶을 살아갈 크리스티앙의 모습이 두 청년은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자로 태어난 그의 삶 또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것이기에 그들은 가족처럼, 친구처럼 아끼던 크리스티앙을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로 보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살기가 쉽지 않았지만 크리스티앙은 차근차근 야생의 삶에 적응해 나가며 비로소 진정한 사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크리스티앙을 떠나 보낸 후에도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잡고 있던 앤서니와 존은 크리스티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케냐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이제 야생에 완전히 길들여진 맹수야. 너희를 공격할지도 몰라.', '어린 시절 길러주었다 해도 주인을 알아 볼 수나 있을까? 기억조차 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이 크리스티앙을 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회한 앤서니와 존, 그리고 크리스티앙. 이들 앞에 마법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서 한 발 한 발 다가오던 크리스티앙은 두 청년을 보고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부리나케 달려와 그들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으로 앙증맞게 얼굴과 머리를 비벼대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크리스티앙과 그를 포근하게 품어준 두 청년의 해후는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꿈, 우주를 향한 도전

한국항공소년단

단체사진

모형항공기 제작

초경량항공기 탑승

가입문의 한국항공소년단 홈페이지 http://www.yfk.or.kr

한국항공소년단 지방연맹 안내

- 서울연맹 070-8129-8856
- 경기연맹 02-953-7543
- 충북연맹 043-224-5599
- 전북연맹 070-8821-7016
- 부산·경남연맹 051-364-5988
- 대전·충남연맹 042-482-1618
- 대구·경북연맹 053-422-8875
- 광주·전라연맹 062-374-5825

한국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글. 편집실 **사진.** 구자철 선수 트위터

홍보대사 Zoom In

안타까운 부상, 발목 인대 파열

공군 홍보대사 구자철 선수가 지난 9월 1일 샬케 04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오른쪽 발목 인대 중 일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독일 언론들은 구자철 선수가 두 달가량 경기에 뛰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자철 선수는 3개월여가 소요되는 수술과 두 달가량 걸리는 재활을 놓고 고심하다 재활을 택했다고 한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재충전의 시간

갑작스러운 부상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지만, 구자철 선수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구자철 선수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긴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행복해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다. 침대에서 일주일 동안 안 일어나야지 ~~ ^^"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줬다.

방콕은 블루마블과 함께

구자철 선수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었다. 구자철 선수는 "이틀 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방콕하면서 블루마블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있다."며 사진 설명을 덧붙여 네티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한편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구자철 공백에 팀은 부진 면치 못해

구자철의 공백 속에 소속팀(아욱스부르크)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그 3라운드를 마친 9월 15일 현재 1무 2패로 리그 15위를 달리고 있다. 3라운드 경기였던 볼프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며 첫 승점을 신고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아욱스부르크 마르쿠스 바인지를 감독은 "구자철의 부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에도 참가하지 못해 국가대표팀의 전력 손실도 불가피해 보인다. **AF**

 글. 편집실 **사진.** 상사 김경률, 중사 권 형, 이병 진성욱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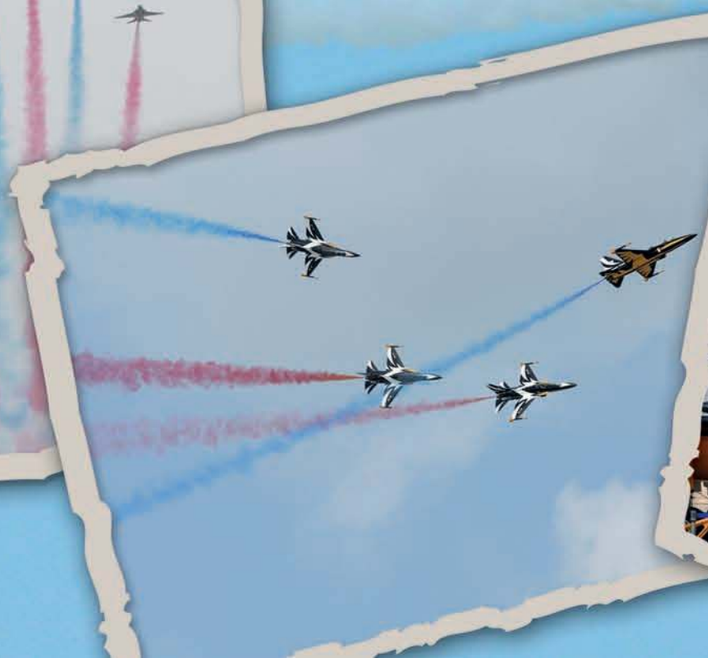
영국에서의 쾌거와 감동 재현한 꿈과 희망의 축제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이글 에어쇼**

World Best! 블랙이글이 돌아왔다! 지난 9월 1일 서울공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블랙이글 에어쇼」가 개최되었습니다. '꿈! 희망! 더 큰 대한민국!'을 테마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블랙이글 에어쇼뿐만 아니라 F-15K, KF-16 등 공군 주요항공기들의 축하비행이 펼쳐졌으며, 국방홍보지원대 정지훈 일병(가수 '비')의 축하공연, 군악 · 의장 공연, 블랙이글 사인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그날의 행사현장을 월간 「공군」이 화보로 담아봤습니다. **AF**

대한민국공군

대한민국공군



대한민국공군

군(軍)통령 걸그룹이 떴다!

MBC '승부의 신' 녹화 현장

지난 9월 4일 10전투비행단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MBC '승부의 신' 녹화를 위해 카라, 시크릿, 레인보우 재경 등 군(軍)통령 걸그룹들이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장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 Hollywood English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 인생은 아름다워

가을에 쓰는 편지
* Art in Everyday

군인, 슈퍼스타가 될 것인가?
* Air-Supply

10월의 문화행사
* Preview

36.5 Culture

글. 이미도 |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어 선물〉 등 지음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9 · 11의 날짜에 숨겨진 비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005년에 〈뮌헨〉을 만들었고, 저는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비극적 실화에 기초한 극영화 〈뮌헨〉은 1972년에 일어난 테러 사건과 반테러 작전이 이야기의 축입니다. 테러 사건이란 뮌헨 하계올림픽에 참가한 이스라엘 선수단 중 11명이 학살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체는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지요.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응징을 결정했고, 모사드를 통해 반테러 팀을 만들었으며, 특수 대원들은 테러 사건의 배후 11명을 색출해 암살하였지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죠?" 저는 번역을 하다가 불현듯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은 섬뜩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전화를 했던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검은 9월단의 '9'와 이스라엘 선수단 희생자 및 보복당한 테러범들의 숫자인 '11'의 조합이 혹시 9 · 11인 것은 아닐까요?" 저의 분석은 음모이론의 발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저는 그들로부터 '어쨌든 충격적인 분석'이라는 반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흔적을 쫓는 천재 소년의 오디세이

영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Extremely Loud & Incredibly Close〉의 소재는 9 · 11 테러입니다. 테러가 일어난 날 아버지를 잃은 천재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영화는 소년 오스카(토마스 혼)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이승 바로 밑에 저승이 연결될 수 있을 거야(A whole world could be underneath the living one)!" 고층건물을 지을 때마다 지하에 공동묘지용 시설을 함께 지으면 언제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 고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한 것이지요. 영화의 시작 시점은 오스카가 아버지를 잃은 지 1년 뒤입니다.

소년의 아버지 토마스(톰 행크스)는 오스카에게 친구 같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무척 로맨틱합니다. 해마다 결혼기념일엔 처음 청혼했던 곳에서 아내에게 새로 청혼하는 남자입니다. 그의 결혼기념일은 9월 14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가 목숨을 잃은 날이 9월 11일입니다. 영화는 이 지점에서 오스카의 입을 빌려 기습 펀치처럼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태양이 폭발한다면 우리는 그걸 언제쯤 알게 될까요?" 오스카는 우리의 궁금증을 친절한 독백으로 풀어줍니다.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8분 뒤에 알게 돼요."

"열쇠가 존재한다면 자물쇠도 있는 거야."

8분! 오스카가 이 8분의 의미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 · 11 테러 직후 아빠와 통화할 수 있었던 극적이고도 마지막인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듣고 있니(Are you there)?"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스카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묻는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를 자동응답기를 통해 무려 아홉 번이나 들어놓고도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따라 느낌이 불길했기 때문이지요. 오스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단다(I wanted to tell you how much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아빠가 사망한 뒤에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오스카는 매순간 악몽을 꾸듯 괴로워합니다.

8분! 오스카가 이 8분의 의미에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오스카가 아빠의 유품을 살피다가 그만 실수로 꽃병을 떨어트립니다. 동시

에 오스카는 깨진 꽃병에서 작은 봉투와 열쇠를 발견합니다. 봉투에는 '블랙(Black)'이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오스카는 외칩니다. "열쇠가 존재한다면 자물쇠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름이 존재한다면 사람도 있어야 해(If there was a key, there was a lock. If there was a name, there was a person)." 오스카는 뒤지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부를 샅샅이 뒤져 '블랙' 성을 가진 뉴욕 시민 472명을 솎아 냅니다. 그리곤 그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다니기로 결심합니다. 등교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마다 두 명씩 찾아다닌다고 해도 장장 3년이 걸리는 큰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오스카는 착수합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아 단절된,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영원히 연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열쇠의 주인공을 찾기만 하면 마치 태양의 폭발이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치유법은 사랑

오스카의 수색에 동행인도 생깁니다.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토마스의 아버지 즉, 오스카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살았던 할아버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애써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오스카를 돕기로 한 것이지요. 하루는 오스카가 한 성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성직자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란다(Everyday is a miracle)." 그러자 오스카는 당돌하고 냉정하게 쏘아붙입니다. "저는 기적을 안 믿어요." 과연 오스카의 여정엔 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심지어 기나긴 여정의 끝에 이르러 오스카는 기적을 믿기로 합니다. 열쇠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마침내 찾아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만나기까지의 극적인 여정,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상실의 아픔을 오스카가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오롯하게 담은 후반부는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극적인 영화감상을 존중하기 위해 가려두기로 합니다.

영화는 왜 제목에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란 표현을 넣은 걸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오스카가 찾던 상징적 이름인 '블랙'은 알고 보니 무척이나 '가까이에' 존재한답니다. 9 · 11 테러의 거대한 비극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말'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말은 반항과 자해와 기행을 일삼는 아들의 일탈을 끝까지 침묵으로 지켜봐준 엄마(샌드라 블록)에게 아들이 묻는 대목에 들어있습니다. "엄마, 내가 사랑한다는 말 자주 안 하지(Mom? I dont' tell you I love you enough times, do I)?" 가장 위대한 치유법은 사랑(The greatest healing therapy is love)이라는 묵직한 주제가 오랫동안 가슴이 남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AF**

한 맺힌 집시여인의 통렬한 복수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유럽인들이 집시를 경계하며 지내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는 언제나 골칫거리였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마을에 퍼졌다. 집시가 우물에 독을 풀어 넣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아이를 유괴해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고기를 먹는다는 해괴망측한 이야기까지, 집시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무성한 소문이 함께했다. 집시들이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은 특히 유럽 남부의 스페인에서 유랑생활을 하곤 했다. 베르디가 작곡한 〈일 트로바토레(Il Trovatore)〉 역시 한 맺힌 스페인 집시들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일 트로바토레' 혹은 '트루바두르' … 이 생소한 말을 우리말로 풀어쓰면 '음유시인'에 가깝다. 한 손으로 현악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현을 뜯으며 세상을 노래하는 트루바두르는 12, 13세기에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시인이자 작곡가이며 가수였던 음유시인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풍부한 감수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더구나 무예에도 출중했던 이들은 기사로서 뭇 여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무예와 감성을 겸비한 시인이라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비쳐졌겠는가… 이 오페라의 남자 주인공 역시 음유시인이었다.

얼마 전 기사들이 경합을 겨룬 시합에서 관중의 주목을 받은 한 기사가 있었다. 방패에 그 어떤 문장(紋章)도 새기지 않은, 검은 갑옷의 기사… 귀족 출신도 아닌 이 기사는 그날 시합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어떤 기사보다 늠름한 자태를 뽐냈다. 승리한 이 기사의 머리에 화환을 씌워준 귀족 여인 '레오노라' … 이 정숙한 여인은 출신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날부터 '만리코'라는 이 트루바두르를 남몰래 사랑한다.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날 밤, 창밖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니, 레오노라를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꿈에 그리던 검은 갑옷의 만리코가 찾아온 것이었다. 레오노라는 비할 데 없는 행복을 느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레오노라의 주변을 맴도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아라곤 왕자를 수행하는 그는 '루나 백작'. 레오노라에게 마음을 뺏긴 루나 백작은 밤이면 그녀의 집을 서성이며 레오노라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레오노라가 트루바두르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마음을 단념하지 못했던 백작은 또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 만리코도 레오노라를 찾아오고, 만리코를 기다리던 레오노라는 기쁜 마음에 그의 품에 안긴다. 그런데 레오노라를 품에 안은 것은 만리코가 아닌 루나 백작…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난 만리코는 백작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두 사람은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결투를 시작한다. 사랑하는 만리코를 잃게 될까 겁에 질린 레오노라는 실신해 쓰러지고, 두 사람은 결투장으로 향한다.

다음 장면은 집시들이 모여 있는 대장간… 예로부터 대장장이 일을 했던 집시들은 음험한 산자락에서 모닥불을 태우며, 대장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함께 있던 한 여인… 복수, 복수를 외치며 부상당한 만리코를 바라보고 있는 이 집시여인은 '아추체나'였다. 아추체나는 아들 만리코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 백작의 아기에게 마법을 걸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붙잡힌 그녀의 어머니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추체나는 어머니의 화형을 막기 위해 그 뒤를 따라갔지만 사람들은 끔찍하게 어머니의 처형을 집행했고, "복수해 줘!"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정신을 잃은 아추체나는 화형을 집행하는 백작의 아이를 납치해 화형대에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보니, 백작의 아이는 그대로 있고 자신의 아이가 불길 속에 있음을 발견한다.

평소에도 아추체나는 복수를 다짐하며 지냈지만, 오늘처럼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 건 처음이었다. 루나 백작과의 결투에서 부상을 당한 만리코는 어머니의 알 수 없는 이야기에 놀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만리코의 부하가 급박한 소식을 전해온다. 만리코가 결투 중에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한 레오노라가 수녀원에 들어가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레오노라를 막으려 했던 만리코는 부상이 심각한 지경이었음에도 길을 나섰고,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달음에 레오노라를 찾아온다. 하지만 또다시 그들을 방해하는 루나 백작... 그러나 이번에는 만리코의 부하들이 백작을 포위하는데 성공한다. 어렵게 재회한 연인,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한편, 레오노라를 잃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 루나 백작은 만리코가 있는 카스텔로 성 정복에 가담하는데, 그때 초소 부근에서 한 집시여인이 발견된다. 백작 앞에 끌려온 집시는 바로 아추체나...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에 유심히 아추체나를 관찰하던 루나 백작은 그녀의 소중한 아들이 만리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렸을 적 세상을 먼저 떠난 동생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운명의 여신이 자신에게 미소짓고 있다고 생각한 루나 백작, 그는 아추체나를 화형시키기로 결심한다.

카스텔로 성에는 사랑하는 연인, 만리코와 레오노라가 함께 있었다. 성스러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은 성 밖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불길한 운명을 예감한다. 신에게 순수한 사랑을 약속하는 서약의 자리... 그것은 만리코의 부하가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혼란에 빠지고 만다. 곧 집시여인이 화형대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레오노라는 그제야 만리코가 집시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리코는 이제 막 신부가 된 여인을 남겨두고 어머니를 구하러 나선다. "당신의 연인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남긴 채...

루나 백작의 계략에 어김없이 걸려든 만리코는 옥탑 감옥에 갇히고,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기다리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리코 앞에 비장한 표정의 레오노라가 나타난다. 만리코는 사랑하는 여인을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녀가 옥탑 감옥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 "제가 당신을 구했다."는 레오노라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란 만리코, 그는 자신의 부인이 결혼서약을 어겼음을 깨닫는다. 아내의 배신에 불같이 화를 내며 저주를 퍼붓지만, 레오노라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서있었다. 루나 백작에게 만리코의 석방을 약속받은 레오노라는 백작에게 사랑을 거짓 맹세하고는 반지 속에 넣어둔 독약을 마신 것이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만리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루나 백작은 만리코를 그 즉시 처형한다.

정신을 차린 아추체나,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찾지만, 루나 백작은 말한다. "너의 아들은 죽었다!" 그러자 집시여인은 악마의 표정으로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다. "그는 너의 동생이다!" 조금 전 처형된 만리코가 어렸을 적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라니... 집시여인을 화형한 그날 없어진 동생이라니... 운명의 장난 앞에 괴로워하는 백작 옆에서 아추체나는 외친다. "어머니, 드디어 당신의 복수를 마쳤습니다!" **AF**

글. 박나경 | 문화예술칼럼니스트, KBS Classic FM '당신의 밤과 음악' 방송작가

가을에 쓰는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 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제는 한낮의 햇살도 가을에서 비껴가지 못할 만큼 가을빛이 완연해졌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칠 때마다, 거리를 뒹구는 낙엽이 발끝에서 바스락 부서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선율이 있다면, 바로 노래가 아닐까. 시인 고은의 시에 지금은 공연기획 및 제작자로 더 유명한 김민기가 곡을 붙인 '가을편지'. 1971년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최양숙(1960년대 말, 일본 초청으로 앨범까지 낸 어찌 보면 한류의 원조이다.)이 노래한 이후 작곡자인 김민기, 최근의 김종국, 보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수들의 목소리로 지난 40년간 우리 귓가에 머물던 바로 그 노래. 이 노래의 인기 비결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선율과 단순하면서도 의미 깊은 시의 만남이란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인 '편지'에 대한 누구나의 마음속 향수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낙엽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가 마치 마음을 찌르는 듯 다가오는 가을날이면 떠오르는 누군가…. 그런 이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3년, 나는 어느 미술관 안에 마련된 작은 방 안의 앉은뱅이책상 앞에 앉아서 따뜻한 오렌지 빛 조명 아래 길고 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대만 출신의 현대미술작가 리 밍웨이(Lee Mingwei)의 '편지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것이다. 그는 미술관 안에 나무와 반투명유리를 이용해 한 사람이 들어가 앉기에 적당한 크기로 부스를 만들고, 그 안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키 낮은 책상과 편지를 쓰는 데 필요한 필기구, 편지지를 준비해 뒀다. 그리고 왠지 따스한 옛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가스등의 오렌지 빛 조명…. 관람객들은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다 쓴 편지를 밀봉해 주소를 적어 편지함에 넣거나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채 부스 벽면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남겨놓을 수 있었다. 미술관 안에 마련된 편지쓰기의 공간. 리 밍웨이가 이런 작업을 시도하게 된 것은 어머니처럼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 할머니께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그때, 그는 그때부터 반 년 동안 할머니가 살아있다고 상상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편지를 썼다. 그때그때 할머니가 자신의 편지를 읽어준다고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녀와 나누면서 그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있었고,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더욱 진하게 간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시간의 장애를 뛰어넘는 편지쓰기에 관람객들을 초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만들어 놓은 작은 방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지금 곁에 없어 마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해 내내 앙금처럼 마음에 남아 있던 감사와 용서와 사과의 말들을 편지지에 적어 내려가는 것이다. 주소를 적어 밀봉까지 한 편지는 전시가 끝난 후 미술관 쪽에서 그 주소지로 편지를 보내고, 주소가 적히지 않은 편지들은 불에 태워서 그 사연들이 바람에 실려 수신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부스의 벽면에 남아 있던 편지들 대부분이 그렇게 주인을 잃은 편지들이었는데, 그 편지들을 밀봉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겨두게 한 것은, 뒤에 그 방안에 들어선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읽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무심코 집어든 편지를 읽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추억을 되살리고, 편지의 내용에 공감하며, 자신에게도 차마 전하지 못한 사연들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자신만의 사연을 또 다른 편지로 남기게 되며 그렇게 편지를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감정사슬로 엮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되기를 작가는 바랐던 것이다. 부치지 못한 편지, 상대방에게 닿지는 못했더라도 편지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리 밍웨이는 새삼 깨닫게 해줬다.

편지. 이메일과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에 밀려 '손 편지'라는 말이 따로 쓰일 정도인 시대. 하지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우편함에서 꺼내 밀봉된 부분을 뜯고 고이 접은 편지지를 펼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주는 느낌을 마우스나 손가락 몇 번의 클릭은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부친 뒤, 편지가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을 따져보고, 답장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의 설렘은 또 어떠한가. 보낸 메시지의 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도저히 되새김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선이 점점 드물어지는 손 편지와 함께 영영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기도 한다.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이지만, 그 편지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의미와 헤아리지 못한 오랜 시간을 품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오인환 작가의 '미팅 타임(Meeting Time)'이란 작품 덕분이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작가 오인환은 자신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과 나란히 팔을 맞대어 서로의 손목시계를 비교하는 사진을 찍곤 했다. 사진 속 손목시계의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서로 다른 숫자는 그가 시차가 벌어지는 다른 공간으로부터 이제 막 건너와 또 다른 시간을 만났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는 이 사진들을 엽서로 만들어서 전시장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올리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그 엽서들을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엽서를 작가 자신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다. 사람들은 작가의 엽서를 그저 소장용으로 수집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작가에게 전하는 짧은 메시지를 적어 작가가 알려준 주소로 엽서를 보내왔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 작가에게 날아오던 엽서가 거의 끊긴 넉 달 뒤, 작가는 그제야 도착한 한 장의 엽서를 받았다고 한다. 엽서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다.

'전시회에서 만남의 시간이 담긴 엽서 한 장을 소중히 가져왔습니다. 그 엽서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작품을 하는 동안 작가가 품었을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넉 달 동안 간직했어요. 전시를 준비하는 넉 달 동안 작가의 시간을 품었고, 또 넉 달 동안의 제 시간들을 함께 엽서에 담아 늦었지만 다시 보내 드립니다.'

작가가 작품을 준비하면서 품었던 시간들과 그 과정에서 작가가 만난 사람들의 시간, 그리고 그의 작품을 접한 관람객의 시간이 함께 어우러진 또 다른 만남의 시간. 오인환 작가가 작품을 통해 시도했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탄생시켰는지를 그의 엽서 작업 '미팅 타임'이 말해주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조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오늘날 대세를 이루는 전자매체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시간과 관계의 미세한 감정들을 담을 수 있는 편지와 엽서. 그 소중한 감정들을 사람들 사이에 다시 일깨우고 한 번쯤 시도하게 하는 작가들의 따스한 감성을 떠올리면서 깊어가는 가을,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편지 한 장 써내려가 보는 건 어떨지. **AF**

글. 강명석 | 대중문화평론가, 10asia 편집장

군인, 슈퍼스타가 될 것인가?

또다시 금요일이 돌아왔다. m.net 〈슈퍼스타 K〉를 보는 금요일 말이다. 서인국, 허각, 울랄라세션 등 매 시즌마다 화제의 우승자를 탄생시켰던 〈슈퍼스타 K〉는 올해도 200만 명이 넘는 신청자를 받아 그중 단 11팀만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선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실력자를 찾아내고, 시청자가 스스로 심사위원이 되어 출연자를 평가하는 것은 〈슈퍼스타 K〉를 비롯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재미다. 하지만 올해 국군 장병들은 더욱더 〈슈퍼스타 K〉에 몰입할 수 있었을 듯하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올해 〈슈퍼스타 K〉는 군부대까지 오디션을 확대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대에 올랐다면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날 같이 훈련을 받던 내 동료가, 또는 바로 나 자신이 〈슈퍼스타 K〉의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슈퍼스타 K〉가 지금까지 '대국민 오디션'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관심을 얻는 이유다.

특히, 이번 〈슈퍼스타 K〉에 등장한 군인 출연자들은 어떤 출연자들에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기막힌 춤이나 코미디로 좌중을 웃기는가 하면, 군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손담비나 소녀시대의 멤버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어필했다. 뛰어난 실력으로 예선을 거뜬하게 통과하고 '슈퍼위크'에서 소녀시대의 'Twinkle'을 부른 김정환은 빼어난 기타 솜씨와 가창력을 모두 갖춰 결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고, 언론이 '얼짱 여군'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여군 강수연은 미모 이상의 노래 실력까지 갖춰 단숨에 인터넷 스타가 됐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용혁의 오디션은 〈슈퍼스타 K〉의 심사위원들은 물론 전국의 시청자들까지 감동시켰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그는 실제로 오디션장에 등장한 어머니 앞에서 노래해 오디션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울게 만들었다. 제작진이 투병 중인 어머니를 굳이 모셔왔어야 했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모자 모두 서로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지 않았을까. 군인이 아니더라도 이용혁의 모습을 보며 군인의 심정에 대해 더욱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듯 싶다. 〈슈퍼스타 K〉의 군부대 오디션은 군인들에게는 잠시 동안이나마 아직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요즘 군인들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듯하다.

최근 군에서 제대한 인기 연예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가 더욱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군대만 가면 초등학생들에게 '군인 아저씨'라는 편지를 받곤 했지만, 이준기, 붐, 조인성, 다이나믹 듀오 등 군에서 제대한 연예인들의 활약은 이런 이미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일반 병사들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 시청자들과 만날 기회가 다소 줄었다. 1980년대에는 〈배달의 기수〉를 비롯, 군인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상당수 제작됐다. 1990년대에는 군부대를 소재로 한 병영 드라마 〈남자 만들기〉가 큰 히트를 기록했고, MBC 〈우정의 무대〉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방영될 만큼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군복무 중이거나 군인의 가족이었다면 〈우정의 무대〉에서 "엄마가 보고플 때 ~"로 시작하는 노래와 함께 군인과 어머니가 만나는 코너를 기억할 것이다. 반면 2000년대 이후는 사회에서 인기 있던 연예인 출신 연예사병을 제외하면 군인의 모습을 보기 쉽지 않다.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군인들은 딱딱하거나 재미없다는 이미지가 생겨서는 아닐까. 공군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R2B : 리턴투베이스〉에서도 유준상이 오직 원칙만을 지키는 'FM 군인'으로 묘사되는데, 군인이 FM 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대중은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을 흥미있게 보지만은 않는 듯하다.

그 점에서 〈슈퍼스타 K〉는 군인이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한 가지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오디션 무대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그들은 군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보였다. 단체로 열을 맞춰 경례를 붙이고,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도 군인의 본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잃지 않았다. 반면 오디션 무대 위에서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끼를 보여줬다. 예선을 통과한 군인들이 '슈퍼위크'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떠나면서 여군 강수연의 인솔에 따라 정확하게 대오를 짜서 걷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군인의 좋은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을 듯하다. 군기 들 때 군기 들고, 풀어질 때 풀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군인의 매력 아니겠는가.

그래서 〈슈퍼스타 K〉가 아닌 〈슈퍼스타 A〉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하는 공상도 해본다. Army나 Airforce의 'A' 말이다. 군인들이 여가시간에 부대별로 짬짬이 노래든 춤이든 운동이든 각종 특기를 오디션 하듯 보고,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군인 중 최고의 끼를 가진 군인을 뽑으면 어떨까. 오디션 과정은 국군TV로 꾸준히 방송하고 말이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제약이 있으니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 군인들도 2년여 동안의 군생활에서 나름의 흥미와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일반 시청자들은 군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며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추고, 날고 긴다는 가수 지망생들도 떤다는 〈슈퍼스타 K〉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토록 끼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인 출신 연예인이 아니라 지금 바로 군복무 중인 군인이 대중에게 호감을 사는 슈퍼스타가 된다면 그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과연 〈슈퍼스타 K〉에서 '슈퍼위크'에 참여한 군인 중 결선까지 올라가는 출연자가 나올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군인의 명예를 걸고 선전해 주길 바란다. **AF**

Preview

박칼린의 빅밴드가 연주하는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배우들의 포스터이다. 흑백에 조금은 관능적이기까지 한 포스터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한 지 오래다. 하지만 가을의 문턱에서, 이 공연을 봐야 하는 진짜 이유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바로 뮤지컬 전반을 리드하는 '재즈'이다.

1920년대 격동의 미국. 그 중에서는 시카고는 재즈와 갱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였다. 1975년 뮤지컬의 신화적 존재 밥 파시에 의해 처음 공연된 이후 지금까지 뮤지컬 역사상 네 번째로 오래 공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14인조 빅밴드가 박칼린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재즈 선율을 라이브로 선사한다.

등장배우들도 화려하다. 뮤지컬계 최고의 콤비로 꼽히는 남경주, 최정원과 인순이, 아이비, 성기윤, 윤공주가 공연한다. 대부분의 인기 뮤지컬처럼 아이돌 가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은 손놀림, 눈웃음 하나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배우들의 완숙한 연기가 흐드러지는 재즈 선율 위에서 관객의 오감을 쥐었다 놨다 한다.

주인공 최정원은 뮤지컬 〈시카고〉가 배우로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연기면 연기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뮤지컬계가 인정한 배우의 선택을 믿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 **기간 :** 10월 7일까지
- **장소 :** 서울 디큐브아트센터
- **가격 :** R석 9만원 / S석 7만원 / A석 4만원
- **홈페이지 :** http://www.musical-chicago.co.kr

훈민정음에 관한 이야기

연극 〈뿌리깊은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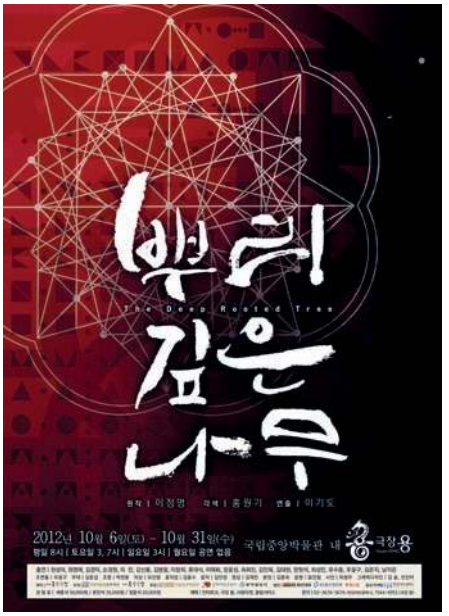
"성군 세종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의 궁궐 한복판에서 연쇄살인사건이라니?"

연극 〈뿌리 깊은 나무〉의 줄거리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펄쩍 뛸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대는 우리 역사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융성한 태평성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수많은 얼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어떤 시대든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수많은 얼굴을 지녔다. 연극 〈뿌리 깊은 나무〉는 우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종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뿌리 깊은 나무〉는 더 나은 시대를 위해 싸웠던 오래 전 사람들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연극을 통해 위대한 세종의 시대를 왕이나 고위 대신, 집현전 학사들의 눈이 아니라 천한 궁궐 수비병의 눈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7일 동안 이야기를 풀어가는 원작과 달리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극 전개도 주목할 만하다. 짧아진 시간만큼이나 무대 위의 스토리는 더 흥미진진해졌다. 특히 추리 연극을 뒷받침하는 우리 소리는 서편제와는 또 다른 전통미학의 진수를 보여준다.

- **기간 :** 10월 6~31일까지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용
- **가격 :** 세종석 5만원 / 훈민석 3만 5천원 / 정음석 2만원
- **홈페이지 :** http://www.theateryong.or.kr



Opinion

천연조미료로 건강을 지킨다!
* 공군지 캠페인

술로 소독할 수 있다고?
* Health Diary

삼성전자 사원들이 내게 한 부탁
* 독자기고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 책마을

 글. 유현정 | (주) 비타민하우스 광고홍보팀장

조미료로 건강을 지킨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조미료로 맛을 낸 냉면'을 소재로 다루며, 화학조미료와 천연조미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 방송에서는 시중 냉면 육수의 대부분이 화학조미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안타깝게도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착한 식당을 찾는 것은 미제로 남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천연원료를 찾지만, 이미 화학조미료의 맛에 길들여져 있다. 화학조미료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익숙한 맛을 버리고 천연의 맛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등 다양한 천연재료가 필요하다. 천연조미료는 화학조미료와 달리 많이 먹어도 해가 없고, 비타민과 칼슘 등이 풍부한 영양덩어리이다. 몇 가지 기본 재료들을 갈아서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조미료를 알아보자.

재료 : (가루) 멸치, 말린 홍합, 다시마, 말린 새우, 들깨, 고추씨, 호두, 표고버섯, 북어채, (국물) 양파껍질, 북어머리, 파뿌리 등

1. 멸치가루

나물, 수제비, 우거지국을 만들 때 사용되는 멸치가루는 잘 마른 멸치의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뒤, 분쇄기에 곱게 간다. 멸치는 중간크기 이상으로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 밝은색으로 고르고, 국물을 내고 싶다면, 양파, 다시마, 무를 함께 넣고 푹 끓인다.

2. 홍합가루

스파게티나 피자소스, 된장찌개 등에 사용되는 홍합가루는 해물의 독특한 향과 맛을 첨가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시판되는 말린 홍합을 구입하여, 집에서 깨끗하게 세척하여 잘 말린 다음, 분쇄기에 곱게 갈아 보관한다.

3. 다시마가루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천연조미료 다시마는 찜, 탕, 볶음류 등 모든 요리에 넣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이다. 요오드와 비타민A가 풍부하고, 전분의 소화를 도와주고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도움을 준다. 가루를 만들어서도 사용하지만, 국물을 낼 때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두었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다. 두께가 도톰하면서도 흑청색을 띠고, 건조가 바짝 잘 되어 표면에 흰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4. 새우가루

여름철 스태미나 보강에 좋다. 해물요리나 해물냉채에 넣어 먹으면 향긋하고 고소하다. 호박무침이나 호박국에도 어울리는 천연조미료이다. 바삭한 식감을 원한다면, 새우가루 대신 마른 새우를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5. 들깨가루

나물 무칠 때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되는 들깨가루는 음식에 넣으면 특유의 구수한 맛이 난다. 비타민 A와 E, F 등이 다량 함유되어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사람, 임신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좋은 천연조미료이다. 잘 말린 들깨를 분쇄기에서 곱게 갈아 보관한다. 다른 향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밀봉에 유의해야 한다.

6. 고추씨가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가을에 태양초 고추를 잘 말려 고춧가루를 만든다. 이때 마른 고추를 다듬으면서 나온 고추씨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분쇄기에 갈아 조미료로 사용하면 좋다. 매운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칼칼한 맛을 더해준다. 볶음이나 조림요리에서는 살짝 매운맛을 보태주고, 육류나 어류 요리에서는 비린 맛을 줄여주기도 한다.

7. 호두가루

호두가루를 만들 때, 그대로 사용하면 요리에서 쓴맛이 돌기 때문에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사용해야 한다. 살짝 데친 후, 재빨리 헹궈 체에 밭쳐 수분을 제거한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노릇하게 볶은 후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간다. 된장이나 소금으로 담백하게 무치는 나물요리 등에 쓰면 고소한 맛이 더해진다. 과일 드레싱 위에 첨가해도 좋다.

8. 표고버섯가루

라면의 건더기 스프에서 간혹 보이는 표고버섯도 천연조미료의 소재가 된다. 각종 국과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한다. 국물 낼 때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표고버섯의 구아닌산과 다시마의 글루타민산이 합해져 은은한 향과 시원한 맛이 난다.

9. 북어가루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이다. 담백한 맛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 북어포를 적당한 크기로 찢어 분쇄기에 넣고 간다. 무게감이 없어 잘 분쇄되지 않을 때는 물에 살짝 담그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분쇄하면 가루가 고와진다.

10. 기타

- 육류를 연하고 맛좋게 하려면 – 배나 키위를 갈아 넣으면 연육 작용으로 육류가 부드러워지고, 맛도 좋다.
- 국물에 감칠맛을 더하고 싶다면 – 북어머리와 파뿌리,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국물 낼 때 활용한다.

Tip 신선한 재료로 만든 천연조미료는 유통기한이 짧다. 때문에 만들 때 사용기간 및 섭취 분량을 예상하고 적정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또한 실온에서 보관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최대한 빨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냉장고 속 다른 음식물의 냄새가 스며들어 본연의 역할을 못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한다. **AF**

 글. 소령 양진백 |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항의전대장

술로 소독할 수 있다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날씨가 좋다 보니 여기저기서 모임자리를 갖게 됩니다. 특히 진급발표 시기를 앞두고 초초한 마음을 달래거나 격려를 해주고자 하는 회식자리까지 더해 평소보다 술 소비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필자도 주변 분들과의 회식자리가 다소 잦아졌는데, 때마침 재미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운날 날음식인 회를 먹어도 뱃속에 술이 같이 들어가면 소독이 다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독약이 없던 옛날 다치거나 상처가 났을 경우 민간요법으로 종종 술을 부어 소독을 해왔다는 얘기며, 실제 역사 문헌에서도 '술로 상처를 소독했다'는 기록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에 필자 또한 술의 소독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여부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술의 소독효과에 대한 진실을 공군 식구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고 싶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한 잔, 패배의 서운함에 한 잔, 이래저래 마시면서도 뱃속까지 소독해 주니 더 좋은 것 아니냐고 계속 들이키는데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술에 대한 진실을 알고 마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은 '술의 소독효과'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술의 소독효과?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술이 소독 겸 마취제로 사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 종반부에서 유태인 공장 종업원들이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금반지를 선물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수중에 금이 있을 리가 없던 그들은 한 동료의 금니를 뽑아 금반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시술 전에 그 자원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이를 뽑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옛 영화들

에서는 총상 환자에 대해 응급처치로 위스키를 뿌려 소독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소독약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종종 이처럼 독한 술을 이용하여 소독약을 대신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술은 정말 소독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알코올 소독효과에 대한 연구

위스키나 보드카와 같은 술들이 영화에서처럼 기대만큼의 소독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주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관련해서 2006년 미국 테네시 주의 이스트테네시 주립대학과 한 재향군인병원에서 발표한 흥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에틸알코올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손소독제들의 농도별 효과를 검정한 실험연구입니다. 실험 결과 40% 알코올은 수돗물로 세척한 것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60% 알코올 농도에서 비로소 소독효과가 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중에서 간혹 판매되고 있는 40% 알코올 농도의 소독제는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고, 그들의 결과는 관련 연구로는 1939년 발표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논문(Price PB, Ethyl alcohol as a germicide, Arch Surg 1939; 38:528–42)과 일치하는 소견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중적 술의 소독효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스키나 보드카의 알코올 농도는 40%입니다. 이보다 높은 농도도 간혹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대부분 40~45% 입니다. 앞서의 2006년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면 수돗물 세척과 큰 차이가 없는 알코올 농도인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알코올 농도 20% 근처의 우리나라 희석식 소주들은 그야말로 맹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술 중에서 50% 후반의 중국 백주나 물을 타지 않고 나무통에서 꺼낸 그대로 병입하여 50%대의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는 캐스크 스트렝스(cask strength) 위스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소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앞서 영화들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돗물 대신 위스키나 보드카를 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여기에는 필자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알코올 소독의 진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낮은 알코올 농도에서는 제대로 된 소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반대로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효과가 큰 것일까요? 즉 100% 알코올 원액으로 소독하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이것 역시 아닙니다. 알코올 농도 100%보다는 오히려 70% 농도에서 더 나은 소독 효

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틸 알코올의 살균 기전을 보면 세균의 막을 침투하여 들어가 세균내 단백질을 응고시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 알코올은 단백질 응고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균 안에 침투하기 전에 세균 표면의 단백질을 미리 응고시켜 단단한 막을 만들어 알코올 성분이 세균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은 잠시 정체 상태에 있게 되나 적절한 환경이 되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틸 알코올 농도 70~80% 정도에서 살균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알코올 소독액은 농도 70~75%로 희석된 액을 사용합니다. 더욱이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최대 소독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례로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기 전 70% 에탄올이 묻어 있는 알코올 솜을 사용하는데, 이때 주사 부위를 문지르고 마르기를 잠시 기다리는데 이유는 최대 소독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정리하며

술 성분에는 흔히 소독제로 쓰이는 알코올이 포함돼 약간의 소독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쓰는 소독약만큼의 소독효과는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는 정도라고 할까요? 특히 회 같은 날음식의 메인 주료로 사용되는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너무 낮아서 소독용으론 거의 무용지물이고, 양주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야 소독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술로 소독하는 것 또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소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이용한 상처 소독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면역기능 저하 및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체내 비타민과 무기질의 과다소모를 가져와 피로회복을 방해합니다. 과한 음주는 백해무익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쪼록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식구 분들께서는 그릇된 술의 '소독효과'를 잊고 절주를 통해 건강을 챙겼으면 합니다. **AF**

삼성전자 사원들이 내게 한 부탁

국방부에서 2011년 처음 시행한 민간기업연수는 육 · 해 · 공 20명(육10, 해5, 공5)의 영관장교를 선발하여 우리나라 6대기업에서 1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군 장교들이 일류기업에서 체득한 경영노하우를 통해 군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내가 공군에서 조종사로서의 삶을 잠시 떠나 회사원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곳은 삼성전자 Global Marketing Office(GMO)로 표준화된 마케팅 및 세일즈전략을 해외법인에 제공해 주는 부서였다. 기업연수기간 동안 조종사라는 개인적 군의 특기와 무관한 마케팅 부서에서 어려운 초기 적응기간을 거쳤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insights를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군인으로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기업문화를 접함으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삼성전자 생활을 돌이켜보며 나누고 싶은 유익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삼성 개혁의 원동력

삼성이 디지털기업으로 대변신하여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발전의 시발점은 1989년 이건희 회장 취임 후 1993년 신경영 선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6월 신경영 선포 이후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는 개혁은 질 경영에서 출발한다. 신경영 이전의 삼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보다 더 창조적인 도전을 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며, 실적과 결과에만 연연한다고 지적하였다. 위기의식은 이건희 회장이 가장 강조한 것으로 취임 당시 국내시장에서 선두, 국제시장에서 삼류를 점하고 있던 삼성직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위기의식 없는 현실안주라고 했다고 한다. 나부터, 쉬운 것부터, 그리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문하며, 처자식 빼고 다 바꿔 보자고 독려하였다. 새로운 삼성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 메시지는 차츰 조직원들에게 공유되었고, 이러한 리더의 지속적인 명확한 지침은 삼성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반보전략에서 치고 나가는 전략으로…

故 이병철 회장은 기업전략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잘나가는 1등기업의 반걸음 뒤에서 쫓아가다가 시장을 점유하는 반걸음전략을 사용했지만, 현재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High Tech 시장에서는 먼저 우수한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삼성은 신속하게 치고 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반응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은 project 수행 시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이후 실행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 신속하게 치고 나가는 전략은 스마트폰의 신모델인 갤럭시 S3에도 적용되었다. '12년 4분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5보다 '12년 2분기에 먼저 출시하는 전략을 펴서 갤럭시 S3가 사상 최대 통신사 선주문을 받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이 전체 2억 3,0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High Tech 시장에서 이 전략이 주효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가치에 근거한 기업문화 구축과 전략수행

기업문화는 조직의 보이지 않는 경영자원으로 기업의 정신적 토대이자 체질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생활하면서 건강한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쌓아올린 경영성과는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글로벌 일류기업과 동일하게

삼성 또한 기업의 핵심가치 공유를 통한 기업과 조직원의 가치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기업 공유가치 이른바 Shared Value로 불리는 핵심가치체계를 수립하고 모든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 핵심가치에 기초하여 경영방향과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조직원들이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경영현장에서 이 핵심가치가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이 다섯 가지 핵심가치가 모든 경영활동 및 인사관리운영의 원칙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핵심가치 공유와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삼성의 5대 핵심가치〉

기업의 Work Smart 운동

근대화 과정에서 대표되는 '열심히 일하는 문화(Work Hard)' 만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초일류로 거듭나기 곤란함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의 대기업들은 일하는 방법과 사고방식을 창조적으로 바꾸기 위해 Work Smart 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첫째, Smart한 회의문화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회의내용 사전공유, 꼭 필요한 인원참석, 그리고 1시간 이내 간결한 회의를 위해 목적달성을 위한 집중적인 회의를 실시한다. 둘째, 그룹장 이상의 리더위치에 있는 보직장/간부들에게 명확한 업무지시를 강조한다. 업무지시는 5W1I(Who, What, Why, When, Where, Impact)로 나누어 명확히 하고, 최종 Output 이미지를 그려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셋째, 문서보고 간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리더급 보직장/간부들도 문서의 외형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하직원들이 핵심내용만 간결하게 담도록 1page best, 2page better 지키기를 강조한다. 무엇보다 문서를 지시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Key-word나 목차를 제시하여 문서작성의 시간과 양을 줄이고 있다.

우리 군을 위한 제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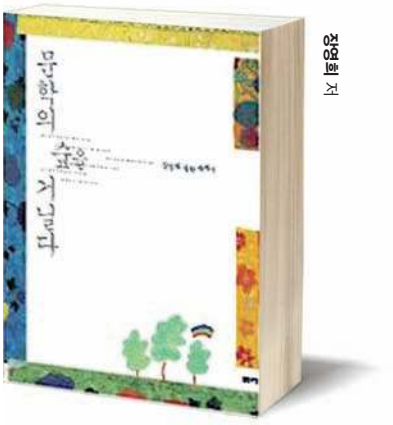
조직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시스템이나 인사관리 방법 등 system만의 벤치마킹을 통해 군조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신선한 참조점은 될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군에 적용할 제언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조직 핵심가치의 중요성이다. 삼성이 전자업계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성공한 그 바탕에는 인재제일, 상생추구, 정도경영, 변화선도, 최고지향이라는 다섯가지 핵심가치와 같이 공유하는 비전이 있었다.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장 · 단기적 전략과 철저히 연계되어 그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축이 되어야 일관성 있는 방침이나 방향제시가 가능하다. 사람이 정신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특히 군조직에서는 정신이 사람을 이끌고 간다. 정신이 약하면 물질에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신경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근본적인 사고방식,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이 사고의 변화를 위해 군의 핵심가치가 조직문화에 보다 더 스며들어야 하겠다.

둘째,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조직발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노력하는 자세이다. 안락함은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안락사시킨다고 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오랜 관습을 벗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현재 주목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세계 1위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삼성의 저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리더와 조직원들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 조직발전을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는 집단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Key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열린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조직 내 성공적인 project 완수를 위해 발달된 공식과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간의 협업과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조직내 소통은 열린 조직문화에서만 가능하다. 군조직 특성상 상하간 수평적 관계는 유지할 수 없겠지만 집단지성이나 창의성을 고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조직내 소통활성화를 위해 상하간 계급을 군림과 지배의 수단인 권력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과 역할로 인식한다면 조직원 전체가 공감하는 열린 조직문화를 우리 군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1년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떠나오던 날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하던 팀원들은 모두들 두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아쉬움을 뒤로하며 삼성전자 중앙문을 나설 때 후돌궐의 명장 톤유쿡이 비문에 남긴 문장을 떠올렸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은 조직의 충성도에서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 있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강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더 월등한 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장차 모든 국민들이 군의 존재가치를 더욱 소중히 인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AF**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구약성경 해설서인 『미드라쉬(Midrash)』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어느 보석 세공인에게 자신을 위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자신이 승승장구하여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나 커다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귀를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보석 세공인은 반지에 새겨 넣을 글귀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지혜롭기로 소문나 있던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왕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받아와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 역시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모두 한 순간의 일입니다.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이나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고 설파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萬物流轉)' 사상 역시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영원할 수도 없는 세상의 섭리에 대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자이자 수필가로 유명한 故 장영희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장영희 저, 샘터, 2005)에서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진 문구에 대해 소개하며 "모든 삶의 과정은 영원하지 않다. 견딜 수 없는 슬픔, 고통, 기쁨, 영원과 오욕의 순간도 어차피 지나가게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미실』(김별아 저, 문이당, 2005)로 유명한 김별아 작가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20개월간 자신의 아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완주하며 산행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두 권의 산문집을 펴냈는데, 그 중 첫 번째 산문집 『이 또한 지나가리라!』(김별아 저, 에코의 서재, 2011)를 통해 "낮은 산도 높은 산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짧은 산행도 긴 산행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어떤 번민과 고뇌와 갈등이라도 지혜로운 솔로몬의 경구처럼 휙휙 쌩쌩 지나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지 않던 김별아 작가가 첫 번째 산문집을 통해 평소 익숙하지 않았던 산행을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며, 지난 산행과 관련하여 펴낸 두 번째 산문집 『괜찮다, 우리는 꽃필 수 있다』(김별아 저, 해냄, 2012)에서는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꽃피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두 권의 산문집을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절망, 고통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니 괜찮다. 이것을 견뎌내면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 중 시련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거나 행여 앞으로 다가올 고통과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미드라쉬(Midrash)』에서 소개한 솔로몬 왕자의 글귀처럼, 故 장영희 교수와 김별아 작가의 글처럼 '이것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2012년도 이제 4분기로 접어들며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겠지요. 남은 2012년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AF**

2012
October
Vol.412

POSTCARD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5.1~2013.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공군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2012 October

Vol.412

POSTCAR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월간 「공군」 10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10월호
퀴즈 정답

1.

2.

3.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0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0월 31일까지

1. 1969년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1979년부터 생산되었으며, 영국, 서독, 이탈리아가 공동개발했고, 1980년대 중반 우리 군이 추진했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의 후보기종으로 참가한 '돌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투기는?

2. 가장 높은 소독 효과를 볼 수 있는 알코올 농도는?

3.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천연조미료로 요오드와 비타민 A가 풍부하고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도움을 주는 이것은?

8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프로메테우스 2. 베버 3. 간접흡연

퀴즈 당첨자 서울 구로구 **이춘성** ● 강원 영월군 **최정훈** ● 충남 계룡시 **설우윤**
전남 순천시 **전정호** ● 서울 관악구 **유재범** ● 광주 광산구 **남건우**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미디어영상팀
월간「공군」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najung21@hanmail.net(인터넷)
najung21@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43 / 042-552-6943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군사기밀 유출자 신고 및 안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337 (www.dsc.mil.kr)

Secret
공군 오빠들
모두화이팅!!
KARA